

## 『醫貫·玄元膚論』에 대한 번역 연구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學史學教室<sup>1</sup> ·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豫防醫學教室<sup>2</sup>

金振鎬<sup>1</sup> · 朴海模<sup>2</sup> · 李容範<sup>1\*</sup>

### The Study of Translating 『Yiguan·Xuanyuanfulun』

Kim Jin-ho<sup>1</sup> · Park Hae-mo<sup>2</sup> · Lee Yong-bum<sup>1\*</sup>

<sup>1</sup>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sup>2</sup>Dep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Objective :** Zhao Xian-Ke(趙獻可) was a doctor in the Ming(明) Dynasty. His representing book is 『Yiguan(醫貫)』. It is considered as a requirement to study the Mingmen academy(命門學說). 『Xuanyuanfulun(玄元膚論)』, volume I of 『Yiguan』 intensively mentions his medical viewpoint. The study investigates Zhao's medical perspectives by studying 『Xuanyuanfulun』.

**Method :** 『Xuanyuanfulun』 is translated. 『Yiguan』 published by Chinese Medicine(中國中醫藥) Publish was used as basis. 『Yiguan』 published by Xuexiao(學苑) Publish was used for reference. I checked and researched for several parts shown in 『Suwen(素問)』 and 『Lingshu(靈樞)』. I researched for 'Master(主)' of a human being.

**Result :**

1. 'Master' of a human being is intangible Huo(火) in Mingmen.
2. It may be hard for me to assent to the opinion of Zhao Xian-Ke that the inferior twelve organs should be regarded as inferior eleven organs naturally.
3. Yinyang(陰陽) is to relatively cope with a situation and its wonders are within Wu(無).
4. Th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Yang, Huo and Qi(氣).
5. The study separates the date (year, month, date and time) into yin and yang and the causes of an illness are found based on the concept and its treatment shall be performed.
6. Among Wuxing(五行), Shui(水) and Huo are especially important.
7. There are intangible Shenshui(腎水) and intangible Xianghuo(相火) separately from the Shui and huo of Xinshen(心腎).

**Conclusion :** The medical philosophy of Zhao Xian-Ke has been deeper. In addition, it will provide much help while understanding volumes 2 - 6 of 『Yiguan』 and apply to the clinical tests. I think it is not the problem, which is the right meaning of 'Master' in the "Xin is monarch of the organs" of 『Suwen·Linglanmidianlun(靈蘭秘典論)』 or 'Master' that concerned by Zhao Xian-Ke, but it is just the different sight of the human being.

**Key Words :** Xin(心), Master(主), Mingmen(命門), Yinyang(陰陽), Wuxing(五行).

## I. 서론

『醫貫』은 明代 溫補派의 醫家인 趙獻可의 대표적인 著作으로, 1617년(明·萬曆45년)에 간행되었다<sup>1)</sup>. 이 책은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권은 「玄元膚論」으로, 『內經』의 十二官과 음양오행에 관한 내용이다. 2권은 「主客辨疑」로, 中風·傷寒·溫病·鬱病에 관한 내용이다. 3권은 「絳雪丹書」로, 血證에 관한 내용이다. 4권·5권은 「先天要論·上」과 「先天要論·下」인데, 六味丸과 八味丸을 주된 처방으로 삼아 眞陰과 眞陽의 부족으로 인한 여러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6권은 「後天要論」이다<sup>2)</sup>.

趙獻可의 字는 養葵이고, 自號는 醫巫閭子이다<sup>3)</sup>. 溫補學派의 주요 인물 가운데 하나로서<sup>4)</sup>, 學問을 좋아하여 두루 通해 알았으며 특히 易을 잘 알고 醫學에 정통하였다<sup>5)</sup>. 특히 命門과 관련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하였는데, 이러한 견해가 반영된 『醫貫』은 命門學說의 필독서로 여겨진다<sup>6)</sup>. 이러한 의미를 가진 『醫貫』에서 命門(太極)과 음양오행 등 의학에 대한 이론적 견해가 집약적으로 나타난 곳이 이 책의 1권인 「玄元膚論」이니, ‘玄元’이라는 제목에서 그러한 단면을 엿볼 수 있겠다. 따라서 「玄元膚論」을 번역하는 일은, 趙獻可의 의학사상<sup>7)</sup>을 이해하고 그의 의술을

臨床<sup>8)</sup>에 활용함에 있어서 바탕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한편, 「玄元膚論」의 ‘『內經』十二官論’에서 趙獻可는 『素問·靈蘭秘典論』에 나오는 “心者, 君主之官也”와 “主不明則十二官危”라는 문장 및 『素問·刺禁論』에 나오는 “七節之旁, 中有小心”이라는 문장을 근거로 삼아 사람의 ‘主’는 心이 아니라 命門이라고 주장하였다<sup>9)</sup>. 이와 관련하여 우선 ‘『內經』十二官論’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다.

“『內經』을 註解한 글들을 음미해 보면 心으로 주인을 삼고 있다. 나는 사람의 몸에 별도로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心은 아니다. 君主의 ‘官’이라고 말하였으면 마땅히 十二官과 함께 평등해야 하니, 홀로 心의 官을 높여 주인으로 삼을 순 없다. 만약 心의 官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下文에 있는 “主不明則十二官危”는 마땅히 “十一官”이라고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치가 매우 분명한데 어찌하여 『內經』을 註解한 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가? 무릇 이 주인은 氣血의 뿌리이고 生死의 관문이며 十二經의 비리이다. 의사가 이를 알지 못하면 의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sup>10)11)</sup>

이상의 문장을 살펴본 결과, 1. 趙獻可가 論據로 삼은 “12官이 위태롭다는 것은 당연히 11官 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라는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 2. 『內經』에서 말한 君主로서의 ‘主’와 『醫貫』에서 말한 命門으로서 眞君·眞主인 ‘主’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 교신저자 : 이용범,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60번지,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E-mail : ybl@sangji.ac.kr Tel : 033-730-0668,  
접수일(2012년 7월 21일), 수정일(2012년 8월 8일),  
게재확정일(2012년 8월 17일)

1) 趙獻可 著, 晏婷婷 校注. 醫貫.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內容提要.  
2) 趙獻可 著, 晏婷婷 校注. 醫貫.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內容提要.  
3) 홍원식 著.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p.249.  
4) 陳大舜, 曾勇, 黃政德 譯. 各家學說-中國篇. 서울, 대성의학사. 2001. p.318.  
5) 홍원식 著.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p.249.  
6) 趙獻可 著, 晏婷婷 校注. 醫貫.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內容提要.  
7) 趙獻可의 의학사상과 관련하여 ‘황병한, 조현가의 학술사상에 관한 연구:명문학설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3.’과 ‘이화, 조현가의 생애와 의학사상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8.’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8) 임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동혁, 맹웅재. 趙獻可의 『醫貫』중 咳嗽論에 관한 研究. 韓國醫學學會誌. 2010. 23(1).’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9) 趙獻可의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陳大舜, 曾勇, 黃政德 譯. 『各家學說-中國篇』. 서울, 대성의학사. 2001. pp.311-312.’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다.  
10) “玩『內經』注文, 即以心爲主, 愚謂人身別有一主, 非心也. 謂之君主之官, 當與十二官平等, 不得獨尊心之官爲主. 若以心之官爲主, 則下文“主不明則十二官危”當云“十一官”矣. 此理甚明, 何注經者昧此耶? 蓋此一主者, 氣血之根, 生死之關, 十二經之綱維. 醫不達此, 醫云乎哉!”  
11) 以下 本論에서 번역한 문장을 인용한 경우 일부를 제외하곤 출처 없이 원문만 注로 달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玄元膚論」을 번역하여 趙獻可의 의학사상을 살펴보고, 아울러 「玄元膚論」의 『內經』十二官論에서 제기되는 “사람의 ‘主’는 심이 아니라 命門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헌적인 고찰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醫貫·玄元膚論』을 번역하여 趙獻可의 의학사상을 살펴본다.

1) 번역에 사용된 底本은 中國中醫藥出版社에서 출판된 晏婷婷 校注의 『醫貫』<sup>12)</sup>이다. 晏婷婷 校注의 『醫貫』은 明·書林張起鵬刻本(이하 ‘張本’이라 한다)을 底本으로 삼았는데, 이 張本은 現存하는 刊刻年代가 가장 오래된 版本이다. 그리고 淸·天蓋樓藏板(이하 ‘天本’이라 한다)을 主校本으로 삼았는데, 이 天本은 明末淸初의 文人 醫家인 呂留良이 評注와 校刻한 것이다<sup>13)</sup>.

2) 原書에 簡體字로 되어 있는 것을 繁體字로 바꾸었다.

3) 學苑出版社에서 출판된 陳永萍 校注의 『醫貫』<sup>14)</sup>을 校勘本으로 삼았다.

4) 底本과 校勘本에 수록된 校注중 번역과 내용에 해에 도움이 되는 校注를 선택하여 原文없이 번역하였으며, 각 校注의 출처를 해당 문장 끝에 ‘(底本)’, ‘(校勘本)’의 형식으로 표시하였다.

5) 底本을 참고하여 편의상 문단을 나누었고, 그림 3개는 생략하였다.

### 2. “사람의 ‘主’는 심이 아니라 命門이다”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趙獻可가 제시한 『內經』의 論據가 타당한지 살펴본다.

12) 趙獻可 著, 晏婷婷 校注. 醫貫.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p.1-25.

13) 趙獻可 著, 晏婷婷 校注. 醫貫.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3(校注說明).

14) 趙獻可 著, 陳永萍 校注. 醫貫. 北京. 學苑出版社. 1996. pp.3-28.

### 3. 『內經』에서 뜻하는 心·君主로서의 ‘主’와 『醫貫』에서 뜻하는 命門으로서의 ‘主’에 대해 살펴본다.

## III. 본론

### 1. 『醫貫·玄元膚論』번역

#### 『內經』十二官論

心者, 君主之官也, 神明出焉. 肺者, 相傳之官, 治節出焉. 肝者, 將軍之官, 謀慮出焉. 膽者, 中正之官, 斷決出焉. 膻中者, 臣使之官, 喜樂出焉. 脾胃者, 倉廩之官, 五味出焉. 大腸者, 傳道之官, 變化出焉. 小腸者, 受盛之官, 化物出焉. 腎者, 作強之官, 伎巧出焉. 三焦者, 決瀆之官, 水道出焉.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 凡此十二官者, 不得相失也. 故主明則下安, 以此養生則壽, 殺世不殆, 以爲天下則大昌. 主不明則十二官危, 使道閉塞而不通, 形乃大傷, 以此養生則殃, 以爲天下者, 其宗大危. 戒之戒之! 至道在微, 變化無窮, 孰知其原? 窘乎哉! 消者瞿瞿, 孰知其要? 閔閔之當, 孰者爲良? 恍惚之數, 生于毫釐, 毫釐之數, 起于度量. 千之萬之, 可以益大, 推之大之, 其形乃制.<sup>15)</sup> (此『內經』文.)

玩『內經』注文, 即以心爲主. 愚謂人身別有一主, 非心也. 謂之君主之官, 當與十二官平等, 不得獨尊心之官爲主. 若以心之官爲主, 則下文“主不明則十二官危”當云“十一官”矣. 此理甚明, 何注經者昧此耶? 蓋此一主者, 氣血之根, 生死之關, 十二經之綱維. 醫不達此, 醫云乎哉!

『內經』을 註解한 글들을 음미해 보면 心으로 주인을 삼고 있다. 나는 사람의 몸에 별도로 주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心은 아니다. 君主의 ‘官’이라고 말하였으면 마땅히 十二官과 함께 평등해야 하니, 홀로 心의 官을 높여 주인으로 삼을 순 없다. 만약 心의

15) 『內經』의 인용문은 이미 책으로 번역되어 많이 나와 있기에 해석하지 아니하였다.

官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下文에 있는 “主不明則十二官危”는 마땅히 “十一官”이라고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치가 매우 분명한데 어찌하여 『內經』을 註解한 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가? 무릇 이 주인은 氣血의 뿌리이고 生死의 관문이며 十二經의 벼리이다. 의사가 이를 알지 못하면 의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或問心既非主, 而君主又是一身之要, 然則主果何物耶? 何形耶? 何處安頓耶? 余曰: 悉乎問也! 若有物可指, 有形可見, 人皆得而知之矣. 惟其無形與無物也, 故自古聖賢因心立論, 而卒不能直指其實.

혹자는 묻기를, 心이 이미 주인이 아니고 君主는 또한 一身의 요체이니, 그렇다면 주인은 과연 무엇인가? 어떠한 형상인가? 어느 곳에 편안히 머무르고 있는가? 내가 말하기를, 갖추었구나, 질문이여! 만약 사물이 있으면 가리킬 수 있고 형상이 있으면 볼 수 있어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을 것이다. 오직 無形과 無物인지라, 때문에 예로부터 聖賢들이 心을 연유하여 論을 세웠으나 마침내 그 실체를 직접 가리키지는 못한 것이다.

孔門之一貫, 上繼“精一”、“執中”之統, 惟曾子·子貢得其傳. 然而二子俱以心悟, 而非言傳也. 若以言傳, 當時門人之所共聞, 不應復有何謂之問也. 後來子思衍其傳而作『中庸』, 天命之性, 以“中”爲大本, 而終於無聲無臭. 孟子說: 不動心有道, 而根于浩然之氣. 及問浩然之氣, 而又曰難言也.

孔子의 문하의 一貫은 위로 ‘精一’과 ‘執中’의 범통을 이었는데, 오직 曾子和 子貢이 그 傳을 얻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마음으로써 깨달은 것이지 말로써 전해 받은 것은 아니다. 가령 말로써 전하였다면 당시의 문하 사람들이 함께 들었을 터이니, 거듭하여 ‘何謂’라는 물음이 있지 않을 것이다. 뒤에 子思가 나와 그 傳을 펴서 『中庸』을 지었으니, 天命의 性은 ‘中’을 大本으로 삼고 無聲·無臭에서 끝난다. 孟子가 말하기를 “不動心에 道가 있으니 浩然之氣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였으나 浩然之氣를 물음에 이르러서는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老氏『道德經』云: “谷神不死, 是爲玄牝<sup>①</sup>. 玄牝之門, 造化之根.” 又曰: “恍恍惚惚, 其中有物.” 佛氏『心經』<sup>②</sup>云: “空中無色, 無受·想·形·識, 無眼·耳·鼻·舌·身·意.” 又曰: “萬法歸一.” “一”歸何處? 夫“一”也, “中”也, “性”也, “浩然”也, “玄牝”也, “空中”也, 皆虛名也, 不得已而強名之也. 立言之士, 皆可以虛名著論. 至于行醫濟世, 將以何味的爲君主之藥, 而可以綱維一身之疾病耶?

#### 【校注】

① 玄牝: 道家에서 만물을 낳아 기르는 本源을 가리킨다.(底本)

② 『心經』: 불교 경전의 이름이다. 아래 인용문의 ‘空’은 ‘四大(地水火風)皆空’을 뜻하고, ‘色’은 ‘物質現象’을 가리키며, ‘受·想·形·識’은 정신현상을 가리킨다.(校勘本)

老子の 『道德經』에서 이르길 “谷神은 죽지 않으니, 이것이 玄牝이다. 玄牝의 문은 造化의 뿌리이다.”라고 하였고, 또 이르길 “어슴푸레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가운데에 物이 있다.”고 하였다. 佛陀의 『心經』에서 이르길 “空中에는 색이 없고 受·想·形·識이 없으며 眼·耳·鼻·舌·身·意가 없다.”고 하였고, 또 이르길 “모든 法은 一로 돌아가는데 一은 어디로 돌아가는가?”라고 하였다. 무릇 ‘一’이나 ‘中’이나 ‘性’이나 ‘浩然’이나 ‘玄牝’이나 ‘空中’은 모두 虛名이니, 부득이하여 억지로 이름 지은 것이다. 후세에 전할 만한 말을 남긴 사람들이 모두 虛名으로써 論을 지은 것이다. 의술을 행하여 세상을 구제함에 이르러서는 장차 어떤 藥味로써 君主의 藥을 삼아 온 몸의 질병을 다스릴 것인가?

余一日遇一高僧問之: “自心是佛, 佛在胸中也?” 僧曰: “非也. 在胸中者是肉團心, 有一真如心是佛.” 又問僧曰: “真如心有何形狀?” 僧曰: “無形.” 余又問: “在何處安寄?” 僧曰: “想在下邊.” 余曰: “此可幾于道矣.” 因與談『內經』諸書 及『銅人圖』, 豁然超悟, 唯唯而退. 今將十二經形景圖逐一申視, 俾學者按圖考索, 據有形之中以求無形之妙, 自得之矣. 特撰形影圖說於後.

내가 어느 날 高僧을 만나 묻기를 “자기 마음이 부처이니, 부처는 가슴속에 있습니까?”라고 하니, 高

僧이 이르길 “아닙니다. 가슴속에 있는 것은 고깃덩어리의 심이고, 眞如心이 있으니 이것이 부처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高僧에게 물기를 “眞如心은 어떤 형상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하니, 高僧이 말하길 “형체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또 물기를 “어디에 편안히 머물러 있습니까?”라고 하니, 高僧이 말하길 “생각건대 아래쪽 부근에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길 “이는 道에 가깝습니다.”라고 하였다. 因하여 『內經』의 여러 책들과 『銅人圖』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환하게 뛰어난 깨달음이 있어 예, 예, 하고 물러났다. 지금 十二經形景圖를 하나씩 펼쳐보니, 배우는 자로 하여금 그림에 근거하여 상고하고 찾게끔 하며, 有形의 中에 근거하여 無形의 妙를 求하여 스스로 깨닫게 한다. 특별히 形影圖說을 뒤에 기록하였다.

臟腑內景<sup>①</sup>, 各有區別. 咽·喉二竅, 同出一腕, 異途施化. 喉在前主出, 咽在後主吞. 喉系堅空, 連接肺本, 爲氣息之路, 呼吸出入, 下通心肝之竅, 以激諸脈之行, 氣之要道也. 咽系柔空, 下接胃本, 爲飲食之路, 水穀同下, 并歸胃中, 乃糧運之關津也. 二道并行, 各不相犯. 蓋飲食必歷氣口而下, 氣口有一會厭. 當飲食方咽, 會厭即垂, 厥口乃閉, 故水穀下咽, 了不犯喉. 言語呼吸, 則會厭開張. 當食言語, 則水穀乘氣送入喉腕, 遂噎而咳矣.

#### 【校注】

① 臟腑內景 : 臟腑의 해부학적 형태와 그 功能 활동을 가리킨다.(校勘本)

臟腑의 內景은 각각 구별이 있다. 咽·喉 두 구멍은 一腕에서 함께 나오지만 다른 길로 施化한다. 喉는 앞에 있어 나가는 것을 주관하고 咽은 뒤에 있어 삼키는 것을 주관한다. 喉系는 단단한 구멍으로 肺本에 연결되어 있다. 숨 쉬는 통로가 되어 숨이 드나들고 아래로 心·肝의 구멍에 통하며 여러 脈의 運行을 격동시키는 氣의 중요한 길이다. 咽系는 부드러운 구멍으로 아래로 胃本에 접하여 있다. 음식의 통로가 되어 水穀이 같이 내려가 아울러 胃中으로 들어가니, 곧 양식을 운반하는 관문과 나루이다. 두 길은 아울러 行하되 각각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무릇 음식은

반드시 氣口를 지나 내려가는데, 氣口에는 會厭이 있다. 음식을 막 삼킬 때에는 會厭이 곧 드리워져 그 입구가 이에 막히니, 때문에 水穀이 咽으로 내려가고 마침내 喉를 간섭하지 않는다. 말 하거나 숨 쉴 때에는 會厭이 퍼져 벌어진다. 먹으면서 말할 때에는 水穀이 氣를 타고 喉腕으로 쫓아 들어가 마침내 사례들어 기침하게 된다.

喉下爲肺, 兩葉白瑩, 謂之華蓋<sup>①</sup>, 以覆諸臟. 虛如蜂窠, 下無透竅, 故吸之則滿, 呼之則虛. 一吸一呼, 本之有源, 無有窮也. 乃清濁之交運<sup>②</sup>, 人身之囊籥. 肺之下爲心. 心有系絡, 上系于肺. 肺受清氣, 下乃灌注. 其象尖長而圓, 其色赤, 其中竅數多寡各異, 迥不相同. 上通于舌, 下無透竅.

#### 【校注】

① 華蓋 : 帝王의 수레덮개를 말한다.(校勘本)

② 清濁之交運 : 清氣와 濁氣의 교환운동. 즉 묵은 것을 내뱉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校勘本)

喉의 아래는 肺가 되어 두 葉이 희고 맑으니 이를 華蓋라 하는데, 여러 臟을 덮고 있다. 벌집처럼 비어 있고 아래로는 뚫린 구멍이 없으니, 때문에 숨을 들이쉬면 가득해지고 내쉬면 비게 된다. 호흡이 뿌리를 두는 근원이 있어 다함이 없다. 이에 맑은 기운과 탁한 기운이 교차하여 運行을 하니, 사람 몸의 풀무이다. 肺의 아래는 心이다. 心에는 系絡이 있는데 위로 肺와 연결되어 있다. 肺가 清氣를 받으면 아래로 이에 흐른다. 그 형상은 끝이 뾰족하고 길면서도 둥글고 붉은색으로 그 가운데의 구멍의 개수는 각각 달라 완연히 서로 같지 않다. 위로 혀와 통하고 아래로는 뚫린 구멍이 없다.

心之下有心包絡, 即膻中也. 象如仰盂, 心即居于其中. 九重端拱<sup>①</sup>, 寂然不動. 凡脾·胃·肝·膽·兩腎·膀胱各有一系, 系于包絡之旁, 以通于心. 此間有宗氣, 積于胸中, 出于喉嚨, 以貫心脈而行呼吸, 即如霧者是也. 如外邪干犯, 則犯包絡. 心不能犯, 犯心即死矣.

#### 【校注】

① 九重端拱 : 九重은 帝王이 거처하는 곳을 가리킨다. 端拱은 帝王이 無爲로써 다스리는 것을 가리킨다.

다.(校勘本)

心の 아래에 心包絡이 있으니 곧 膈中이다. 사발의 입을 위로 향하게 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心은 그 속에 있다. 제왕이 궁궐에 거처하며 無爲의 다스림을 행하듯이 고요하여 움직이지 아니한다. 무릇 脾·胃·肝·膽·兩腎·膀胱에는 각각 系가 하나씩 있는데, 包絡의 곁에 연결되어 心으로 通한다. 이 사이에 宗氣가 있어 가슴 속에 쌓였다가 喉嚨으로 나와 心脉을 꿰뚫고 호흡을 行하니, 즉 안개와 같다는 것이 이것이다. 만일 外邪가 침범하면 包絡을 침범하는 것이다. 心은 침범을 받지 않으니, 心이 침범 받으면 곧 죽는다.

此下有膈膜, 與脊·脇周回相著, 遮蔽濁氣, 使不得上熏心肺. 膈膜之下爲肝. 肝有獨葉者, 有二·三葉者. 其系亦上絡于心包, 爲血之海, 上通于目, 下亦無竅. 肝短葉中, 有膽附焉. 膽有汁, 藏而不瀉. 此喉之一竅也, 施氣運化, 熏蒸流行, 以成脉絡者如此.

이 아래에 膈膜이 있어 척주와 늑골을 빙 둘러 서로 붙어있는데, 濁氣를 가려 막아 위로 心·肺를 훈증하지 못하게 한다. 膈膜의 아래는 肝이다. 肝은 홀잎인 것이 있고 두세 잎인 것이 있다. 그 系는 또한 위로 心包와 연결되고 血의 바다가 되는데, 위로는 눈에 通하고 아래로는 또한 구멍이 없다. 肝의 짧은 잎에 膽이 붙어있다. 膽에는 汁이 있으며, 저장하고 쏟지 않는다. 이상은 喉의 구멍에 속하는 계통이니, 氣를 전하여 運化하고 熏蒸하며 流行하여 脉絡을 이루는 것이 이와 같다.

咽至胃, 長一尺六寸, 通謂之咽門. 咽下是膈膜. 膈膜之下有胃, 盛受飲食, 而腐熟之. 其左有脾, 與胃同膜而附其上, 其色如馬肝赤紫, 其形如刀鎌. 聞聲則動, 動則磨胃, 食乃消化.

咽에서 胃까지 길이가 1척6촌인데, 전체를 咽門이라 한다. 咽의 아래는 膈膜이다. 膈膜의 아래에 胃가 있는데, 음식을 받아 담아 소화시킨다. 그 왼쪽에 脾가 있어 胃와 함께 膜을 같이하여 그 위에 붙어 있는데, 그 색은 붉은 자줏빛인 말의 肝색깔과 같고, 그 형상은 刀나 낫의 모양과 같다. 소리를 들으면 움직

이고 움직이면 胃가 맺돌작용을 하여 음식을 이에 소화시킨다.

胃之左有小腸, 後附脊膂, 左環回周疊<sup>①</sup>積, 其注于回腸者, 外附膂上, 共盤十六曲. 右有大腸, 即回腸, 當膂左, 回周疊積而下, 亦盤十六曲. 廣腸附脊, 以受回腸, 左環疊積, 下辟乃出滓穢之路.

【校注】

① 疊 : 校勘本에는 '迭'로 되어있다. 다음 문장도 이와 같다.

胃의 왼쪽에 小腸이 있어 뒤로 脊膂에 붙어있고, 왼쪽으로 돌면서 갔다 도로 와서 겹쳐 쌓여 回腸으로 연결되는 것이 밖으로는 배꼽 위에 붙어 있는데, 꼬불꼬불한 것이 모두 16굽음이다. 오른쪽에는 大腸이 있으니 곧 回腸인데, 배꼽의 왼쪽에 해당되며 돌면서 갔다 도로 와서 겹쳐 쌓이며 아래로 가니, 또한 꼬불꼬불한 것이 16굽음이다. 廣腸은 척주에 붙어서 回腸으로부터 받아 왼쪽으로 돌면서 겹쳐 쌓이고 아래로 물러나게 하니, 곧 찌꺼와 더러운 것을 내보내는 통로이다.

廣腸左側爲膀胱, 乃津液之府. 五味入胃, 其津液上升, 精者化爲血脉, 以成骨髓; 津液之餘, 流入下部, 得三焦之氣施化, 小腸滲出, 膀胱滲入, 而漚便注泄矣. 凡胃中腐熟水穀, 其精氣自胃之上口(曰賁門.)傳于肺, 肺播于諸脉, 其滓穢自胃之下口(曰幽門.)傳于小腸. 至小腸下口(曰闕門.)泌別其汁, 清者滲出小腸, 而滲入膀胱, 滓穢之物則轉入大腸. 膀胱赤白瑩淨, 上無所入之竅, 止有下口, 全假三焦之氣化施行. 氣不能化, 則閉格不通而病矣.

廣腸의 왼쪽은 膀胱이니 곧 津液의 곳간이다. 五味가 胃에 들어가 그 津液이 위로 올라가 精한 것은 변화하여 血脉이 되고 骨髓를 이룬다. 津液의 나머지는 下部로 흘러 들어가 三焦의 氣化작용을 받아 小腸에서 스며나가서 膀胱으로 스며들어가 소변으로 나가게 된다. 무릇 胃에서 水穀을 소화시키는데, 그 精氣가 胃의 윗구멍(賁門이라 한다.)으로부터 肺로 전해지고 肺에서 여러 脉으로 퍼뜨리며, 그 찌꺼와 더러운 것은 胃의 아랫구멍(幽門이라 한다.)으로부터

小腸으로 전해진다. 小腸의 아랫구멍(關門이라 한다.)에 이르러 그 汁을 泌別하니, 맑은 것은 小腸에서 스며나가 膀胱으로 스며들어가고 찌꺼기와 더러운 것들은 大腸으로 옮겨 들어간다. 膀胱은 밝고 깨끗한 赤白색으로 위에는 들어가는 구멍이 없고 다만 아랫구멍이 있으니, 전적으로 三焦의 氣化작용을 빌어 施行한다. 氣가 변화하지 못하면, 막히고 通하지 아니하여 病이 된다.

此咽之一竅，資生氣血，轉化糟粕，而出入如此。

이상은 咽의 구멍에 속하는 계통이니, 의지하여 氣血을 생성하고 찌꺼기를 轉化하여 나고 드는 것이 이와 같다.

三焦者，上焦如霧，中焦如漚，下焦如瀆。有名無形，主持諸氣，以象三才<sup>①</sup>。故呼吸升降，水穀腐熟，皆待此通達。與命門相爲表裏。上焦出于胃口，并咽以上，貫膈而布胸中，走腋，循太陰之分而行。傳胃中穀味之精氣于肺，肺播于諸脉，即膈中氣海所留宗氣是也。

【校注】

① 三才：天·地·人을 가리킨다.(底本)

三焦는, 上焦는 안개와 같고 中焦는 거품과 같고 下焦는 도랑과 같은 것이다. 이름은 있으나 형체는 없고 모든 氣를 주관하여 지니는데, 三才를 본받았다. 때문에 호흡하여 오르내리고 水穀을 소화시키는 것이 모두 三焦가 通達함에 의지한다. 命門과 더불어 서로 表裏가 된다. 上焦는 胃口에서 나와 咽과 아울러 올라가 膈膜을 뚫고 가슴속에 퍼지며, 겨드랑이로 가서 手太陰의 분야를 따라 行한다. 胃中の 음식물의 精氣를 肺로 보내면 肺에서 여러 脉으로 퍼뜨리니, 곧 膈中·氣海에 머무르는 宗氣가 上焦이다.

中焦在中脘，不上不下，主腐熟水穀，泌糟粕，蒸津液。化其精微，上注于肺脉，乃化爲血液，以奉生身，莫貴于此。即腎中動氣，非有非無，如浪花泡影是也。下焦如瀆，其氣起于胃下脘，別回腸，注于膀胱，主出而不納。即州都之官，氣化則能出者，下焦化之也。

中焦는 中脘에 위치하여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니, 水穀을 소화시키고 찌꺼기를 泌別하며 津液을 썬

내는 것을 주관한다. 그 精微를 변화시켜 肺脉으로 올려 보내면 이에 변화하여 血液이 되니, 몸을 奉養함에 있어 이보다 귀한 것이 없다. 곧 腎中の 動氣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어서 헛꽃이나 물거품·그림자와 같은 것이 中焦이다. 下焦는 도랑과 같으니, 그 氣가 胃의 下脘에서 일어나 回腸에서 갈라져 膀胱으로 들어가는데, 내보내는 것을 주관하고 받아들이진 않는다. 곧 ‘州都의 官이니 氣化하면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은 下焦가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腎有二，精所舍也。生于脊膂十四椎下，兩旁各一寸五分，形如豇豆，相并而曲，附于脊外，有黃脂包裹，裏白外黑。各有帶二條，上條系于心包，下條過屏翳穴<sup>①</sup>後趨脊骨。兩腎俱屬水，但一邊屬陰，一邊屬陽。越人謂“左爲腎，右爲命門”，非也。

【校注】

① 屏翳穴：會陰穴이니 任脈에 속한다.(底本)

腎은 두 개가 있는데 精이 머무는 곳이다. 脊膂의 十四椎 아래에서 양쪽으로 각각 1촌5푼의 거리에 생긴다. 형상은 광저기<sup>16)</sup>와 같아 서로 아울러 구부러져 척주 바깥쪽에 붙어있으며 누런 기름에 둘러싸여 있는데, 안쪽은 하얗고 겉은 검다. 각각 두 줄기 띠가 있는데, 위쪽으로 가는 띠는 心包에 이어지고 아래쪽으로 가는 띠는 屏翳穴을 지나 뒤쪽의 脊骨로 향한다. 두 腎은 모두 水에 속하는데, 다만 한쪽은 陰에 속하고 다른 한쪽은 陽에 속한다. 越人이 “왼쪽은 腎이요 오른쪽은 命門이다.”라고 하였는데, 잘못된 것이다.

命門即在兩腎各一寸五分之間，當一身之中，『易』所謂“一陽陷于二陰之中”，『內經』曰“七節之旁，有小心”是也。名曰命門，是爲眞君眞主，乃一身之太極，無形可見。兩腎之中，是其安宅也。

命門은 곧 양쪽 腎에서 각각 1촌5푼 떨어진 사이에 있으며 몸의 중앙에 해당된다. 『易』에서 이른바 “一陽이 二陰의 사이에 빠져있다.”고 한 것이나, 『內經』에서 “七節의 옆에 小心이 있다.”고 말한 것이 이

16) 광저기：콩과(科)에 속한 한해살이 덩굴성 식물로, 씨는 팔과 비슷하나 약간 길다.

것이다. 이름 지어 命門이라 하는데, 이것이 眞君이요 眞主며 곧 몸의 太極이니 볼 수 있는 형상이 없다. 兩腎의 가운데, 이곳이 命門의 편안한 집이다.

其右旁有一小竅，即三焦。三焦者，是其臣使之官，稟命而行，周流于五臟六腑之間而不息，名曰相火。相火者，言如天君無爲而治，宰相代天行化。此先天無形之火，與後天有形之心火不同。

그 오른쪽에 하나의 작은 구멍이 있으니, 곧 三焦이다. 三焦는 臣使之 官으로 命을 받아 行하고 五臟六腑의 사이를 두루 흘러 쉬지 않는데, 이름 지어 相火라고 한다. 相火는 말하자면 天君이 無爲로써 다스리면 宰相이 天을 대신하여 教化를 行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先天의 無形한 火로 後天의 有形한 心火와는 같지 않다.

其左旁有一小竅，乃眞陰，眞水氣也。亦無形。上行夾脊，至腦中爲髓海；泌其津液，注之于脉，以榮四末；內注五臟六腑，以應刻數<sup>①</sup>；亦隨相火而潛行于周身，與兩腎所主後天有形之水不同。但命門無形之火，在兩腎有形之中，爲黃庭<sup>②</sup>。故曰五臟之眞，惟腎爲根。

【校注】

① 刻數：고대에 ‘刻漏’를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를 만들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數’는 곧 刻數가 된다.(校勘本)

② 黃庭：中央을 가리킨다. 命門功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底本)

그 왼쪽에 하나의 작은 구멍이 있으니, 곧 眞陰이요 眞水氣이다. 역시 無形이다. 척주를 끼고 위로 행하여 腦속에 이르러 髓海가 된다. 津液을 보내 脉으로 흘러 들어 四末을 榮養한다. 안으로 五臟六腑로 흘러들어 刻數에 응하여 순환한다. 또한 相火를 따라 온 몸을 두루 잠기어 흐르니, 兩腎이 주관하는 後天의 有形한 水와는 같지 않다. 다만 命門의 無形한 火는 兩腎의 有形한 가운데에 있으니 黃庭이 된다. 때문에 五臟의 眞氣는 오직 腎이 뿌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

褚齊賢<sup>①</sup>云：“人之初生受胎，始于任之兆，惟命門先

具。有命門，然後生心，心生血；有心然後生肺，肺生皮毛，有肺<sup>②</sup>然後生腎，腎生骨髓；有腎則與命門合，二數備，是以腎有兩岐也。”可見命門爲十二經之主。

【校注】

① 褚齊賢：褚澄이니, 字는 彥道이다. 著書로는 『褚氏遺書』 한 권이 세상에 전해진다.(校勘本)

② 肺：校勘本에 의거하여 ‘脾’를 ‘肺’로 고쳤다. 褚齊賢이 이르길 “사람이 처음 생겨 受胎함에 任脈의 조짐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오직 命門이 먼저 갖추어진다. 命門이 있고 그런 후에 心을 만들고 心이 血을 만든다. 心이 있는 후에 肺를 만들고 肺가 皮毛를 만들며, 肺가 있는 후에 腎을 만들고 腎이 骨髓를 만든다. 腎이 있으면 命門과 合하여 二數가 갖추어지니, 이 때문에 腎에는 두 가지(岐)가 있다.”라고 하였으니, 命門이 十二經의 주인이 됨을 알 수 있다.

腎無此，則無以作強，而技巧不出矣；膀胱無此，則三焦之氣不化，而水道不行矣；脾胃無此，則不能蒸腐水穀，而五味不出矣；肝膽無此，則將軍無決斷，而謀慮不出矣；大小腸無此，則變化不行，而二便閉矣；心無此，則神明昏，而萬事不能應矣。此所謂主不明則十二官危也。

腎에 이것이 없으면 作強을 할 수 없어 技巧가 나오지 못한다. 膀胱에 이것이 없으면 三焦의 氣가 변화하지 못하여 水道가 行하지 못한다. 脾胃에 이것이 없으면 水穀을 찌고 소화시키지 못하여 五味가 나오지 못한다. 肝膽에 이것이 없으면 將軍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여 謀慮가 나오지 못한다. 大腸과 小腸에 이것이 없으면 變化가 일어나지 않아 대소변이 막힌다. 心에 이것이 없으면 神明이 어두워져 萬事에 應하지 못한다. 이것이 이른바 주인이 밝지 못하면 十二官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다.

余有一譬焉，譬之元宵之鰲山走馬灯，拜者·舞者·飛者·走者，無一不具，其中間惟是一火耳。火旺則動速，火微則動緩，火熄則寂然不動，而拜者·舞者·飛者·走者，軀殼未嘗不存也。故曰汝身非汝所有，是天地之委形也。余所以諄諄必欲明此論者，欲世之養身者·治病者，的以命門爲君主，而加意于“火”之一字。



나에게 하나의 비유가 있으니, 비유하자면 정월 보름날 밤에 鰲山의 주마등과 같아서 절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 나는 사람, 달리는 사람 등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그 中間에는 오직 하나의 火가 있을 뿐이다. 火가 왕성하면 움직임이 빠르고 火가 미약하면 움직임이 느리며 火가 꺼지면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절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 나는 사람, 달리는 사람 등은 몸이 일찍이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다. 때문에 당신의 몸이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니, 이는 天地로부터 부여받은 몸이다. 내가 지극정성으로 이 論을 반드시 밝히고자 하는 까닭은, 세상에서 養生하는 사람들과 病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꼭 命門을 君主라 여기고 ‘火’라는 한 글자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자 함이다.

夫既曰立命之門，火乃人身之至寶，何世之養生者，不知保養節欲，而日夜戕賊此火？既病矣，治病者不知溫養此火，而日用寒涼，以直滅此火，焉望其有生氣耶？經曰：“主不明則十二官危，以此養生則殃，戒之戒之！”余今直指其歸元之路而明視之。

무릇 이미 命을 세우는 門이라고 말하였고 火는 곧 사람 몸의 지극한 보배라고 말하였는데, 어찌하여 세상의 몸을 기르는 사람들은 保養·節欲하지 아니하고 낮밤으로 이 火를 상하게 하는가? 이미 病들에 病을 치료하는 자가 이 火를 溫養할 줄 모르고 날마다 寒涼한 약을 사용하여 직접 이 火를 꺼뜨리니, 어찌 生氣가 있음을 바라겠는가? 經에 이르길 “주인이 밝지 못하면 十二官이 위태하다. 이렇게 양생하면 재앙이 이를 것이니, 경계해라! 경계해라!”라고 하였으니, 내가 지금 근원에 돌아가는 길을 직접 가리켜 밝게 보여줄 것이다.

命門君主之火，乃水中之火，相依而永不相離也。火之有餘，緣眞水之不足也，毫不敢去火，只補水以配火，壯水之主，以鎮陽光。火之不足，因見水之有餘也，亦不必瀉水，就于水中補火，益火之原，以消陰翳。所謂“原”與“主”者，皆屬先天無形之妙，非曰心爲火而其原在肝，腎爲水而其主屬<sup>①</sup>肺。

## 【校注】

① 屬：校勘本에는 ‘居’로 되어있다.

命門君主의 火는 곧 水中의 火이니, 서로 의지하고 영원히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火가 有餘한 것은 眞水의 不足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털끝만큼이라도 감히 火를 없애지 말고 다만 水를 補하여 火에 짝지어야 하니, 水의 主를 왕성하게 하여 陽光을 올려주는 것이다. 火가 不足하면 因하여 水가 有餘함을 볼 수 있으니 또한 반드시 水를 瀉하지 말고 곧 水中의 火를 補해야 하니, 火의 原을 북돋아 陰翳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른바 ‘原’과 ‘主’는 모두 先天의 無形한 妙에 속하는 것이지, 心이 火가 되고 그 근원이 肝에 있으며 腎은 水가 되고 그 주인은 肺에 속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蓋心·脾·腎·肝·肺，皆後天有形之物也。須以無形之火，配無形之水，直探其君主之穴宅而求之，是爲同氣相求，斯易以入也。所謂知其要者，一言而終也。若夫風·寒·暑·濕·燥·火六者之入于人身，此客氣也，非主氣也。主氣固，客氣不能入。今之談醫者，徒知客者除之，漫不加意于主氣何哉？縱有言固主氣者，專以脾胃爲一身之主。焉知坤土是離火所生，而艮土又屬坎水所生耶？

대개 心·脾·腎·肝·肺는 모두 後天의 有形한 物이다. 모름지기 無形의 火는 無形의 水에 짝지어야 하니, 직접 君主의 집을 찾아 구하면 이는 同氣相求이니 곧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이른바 그 요점을 알면 한마디로 끝낸다는 것이다. 가령 무릇 風·寒·暑·濕·燥·火 여섯 가지가 사람 몸에 들어오면, 이는 客氣이지 主氣는 아니다. 主氣가 견고하면 客氣는 들어올 수 없다. 지금의 醫를 말하는 자들은 다만 客氣를 제거하는 것만 알고, 방종하여 主氣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 어찌된 것인가? 설사 主氣를 견고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오로지 脾胃로써 몸의 주인을 삼는다. 坤土는 離火가 생한 바이고 艮土 또한 坎水가 생한 바에 속한다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明乎此，不特醫學之淵源有自，而聖賢道統之傳，亦

自此不昧。而所謂一貫也，浩然也，明德也，玄牝也，空中也，太極也，同此一火而已。爲聖爲賢，爲仙爲佛，不過克全此火而歸之耳。小子之一論，闡千古之未明，見者慎勿以爲迂。

이것에 밝으면 다만 醫學의 淵源이 이로부터 시작될 뿐만 아니라 聖賢의 道統之傳도 또한 이로부터 어둡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一貫이오 浩然이오 明德이오 玄牝이오 空中이오 太極이오 하는 것들은 이 一火와 같을 뿐이다. 聖賢이 되고 神仙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것은 능히 이 火를 온전히 하여 근원에 돌아가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의 이 論은 오랜 세월 밝혀지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한 것이니, 보는 사람들은 나의 論이 동떨어졌다고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繫辭』曰：“易有太極，是生兩儀。”周子惧人之不明，而制爲太極圖。無極而太極。無極者，未分之太極也；太極者，已分之陰陽也。“一”·“中”分太極。“中”字之象形，正太極之形也。“一”即伏羲之奇，一而圓之，即是無極。既曰先天太極，天尚未生，盡屬無形，何爲伏羲畫一奇，周子畫一圓，又涉形迹矣？曰：此不得已而開視後學之意也。人受天地之中以生，亦具有太極之形在人身之中。余按古銅人圖，畫一形象，而人身太極之妙，宛然可見。豈好事哉？亦不得已也。

『繫辭』에 이르길 “易에 太極이 있으니, 이것이 兩儀를 生한다.”라고 하였는데, 周子가 사람들이 밝지 못함을 두려워하여 太極圖를 만들었다. 無極이면서 太極이라 하였는데, 無極은 나누어지지 않은 太極이고, 太極은 이미 나누어진 陰陽이다. ‘一’과 ‘中’은 太極으로 나뉜다. ‘中’字가 본뜬 형상은 바로 太極의 형상이다. ‘一’은 곧 伏羲의 기수인데 하나이면서 둥그니, 곧 이것은 無極이다. 이미 先天의 太極이라 말하였으니 天은 오히려 생기지 않아 모두 無形에 속하는데, 왜 伏羲는 기수로 그렸고 周子는 동그라미를 그려서 또 자취를 남겼는가? 말하자면 이는 부득이하여 後學들에게 열여 보이는 뜻이다. 사람이 天地의 가운데를 받아 生하였으니, 또한 太極의 모양을 사람 몸의 가운데에 갖추고 있다. 내가 옛날의 銅人圖를 살펴보고 하나의 형상을 그렸는데, 사람 몸에 있는

太極의 묘함을 완전히 볼 수 있다. 어찌 일을 벌여놓기를 좋아하는 것이겠는가? 역시 부득이하여 그런 것이다.

兩腎俱屬水，左爲陰水，右爲陽水，以右爲命門非也。命門在兩腎中，命門左邊小黑圈是眞水之穴。命門右邊小白圈是相火之穴，此一水一火俱無形，日夜潛行不息。兩腎在人身中合成一太極，自上數下十四節，自下數上七節。

兩腎은 모두 水에 속하여 왼쪽은 陰水가 되고 오른쪽은 陽水가 되는 것이지, 오른쪽을 命門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命門은 兩腎의 가운데에 있는데, 命門 왼쪽 부근에 작고 검은 동그라미가 眞水の 穴이다. 命門 오른쪽 부근에 작고 흰 동그라미가 相火의 穴이니, 이 一水一火는 모두 無形으로 낮밤을 潛行하며 쉬지 않는다. 兩腎이 사람 몸의 가운데에서 합하여 하나의 太極을 이루니, 위로부터 세어 아래로 十四節에 있고 아래로부터 세어 위로 七節에 있다.

命門在人身之中，對臍附脊骨。自上數下，則爲十四椎，自下數上，則爲七椎。『內經』曰：“七節之旁，有小心。”此處兩腎所寄，左邊一腎屬陰水，右邊一腎屬陽水，各開一寸五分。中間是命門所居之官，即太極圖中之白圈也。其右旁一小白竅，即相火也；其左旁之小黑竅，即天一之眞水也。此一水一火，俱屬無形之氣。

命門은 사람 몸의 가운데에 있는데, 배꼽과 마주 보는 脊骨에 붙어있다. 위로부터 아래로 세면 十四椎요, 아래로부터 위로 세면 七椎이다. 『內經』에 이르길 “七節의 옆에 小心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곳이 兩腎이 머물러 있는 곳이다. 왼쪽 부근의 하나의 腎은 陰水에 속하고 오른쪽 부근의 또 하나의 腎은 陽水에 속하여, 각각 1촌5푼 떨어져 있다. 중간이 命門이 거처하는 官이니, 즉 太極圖에서의 흰 구역이다. 그 오른쪽의 하나의 작고 흰 구멍은 곧 相火이고, 그 왼쪽의 작고 검은 구멍은 곧 天一의 眞水이다. 이 一水一火는 모두 無形한 氣에 속한다.

相火稟命于命門，眞水又隨相火，自寅至申，行陽二十五度，自酉至丑，行陰二十五度，日夜周流于五臟六

腑之間，滯則病，息則死矣。人生男女交媾之時，先有火會，而後精聚，故曰火在水之先。人生先生命門火，此褚齊賢之言也，發前人之所未發。

相火가 命門으로부터 命을 받고 眞水는 또 相火를 따라 寅으로부터 申에 이르도록 陽分을 25번 돌고 酉로부터 丑에 이르도록 陰分을 25번 돌아 낮밤으로 五臟六腑의 사이를 두루 흐르니, 막히면 病이 생기고 그치면 죽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성교할 때에 먼저 火가 모이고 뒤에 精이 모이니, 때문에 火가 水의 앞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생길 때 命門의 火가 먼저 생긴다는 것은 褚齊賢의 말로서, 前人が 밝히지 못한 것을 밝힌 것이다.

世謂父精母血，非也。男女俱以火爲先，男女俱有精。但男子陽中有陰，以火爲主；女子陰中有陽，以精爲主。謂陰精陽氣則可。男女合，此二氣交聚，然後成形。成形俱屬後天矣。後天百骸俱備。若無一點先天火氣，盡屬死灰矣。故曰：主不明則十二官危。

세상에서는 ‘父精母血’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다. 男女는 모두 火가 먼저이고, 男女는 모두 精이 있다. 다만 남자는 陽中에 陰이 있어 火를 위주로 하고, 여자는 陰中에 陽이 있어 精을 위주로 한다. ‘陰精陽氣’라고 말하는 것은 옳다. 男女가 합하여 이 두 가지 氣가 서로 모인 연후에 형체를 이룬다. 형체를 이루는 것은 모두 後天에 속한다. 後天에 온 몸이 갖추어 진다. 가령 한 점 先天의 火氣가 없다면 모두 불기운이 없어진 식은 재에 속하게 된다. 때문에 “주인이 밝지 못하면 十二官이 위태로워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或又問曰：如上所言，心爲無用之物耶？古之聖賢，未有不以正心·養心·盡心爲訓，而先生獨欲外心以言道，恐心外之道，非至道也。余曰：子細玩經文，自得之矣。經曰“神明出焉”，則所系亦重矣，豈爲無用哉？闔不觀之朝廷乎？皇極殿，是王者向明出治之所也；乾清宮，是王者向晦晏息之所也。指皇極殿而即謂之君身可乎？蓋元陽君主之所以爲應事接物之用者，皆從心上起經綸，故以心爲主。至于栖眞養息，而爲生生化化之根者，獨藏于兩腎之中，故尤重于腎。其實非腎而亦非心也。

혹자가 또 물어 말하길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면 心은 무용지물입니까? 옛날의 聖賢들이 正心·養心·盡心으로 가르침을 삼지 않은 적이 없는데 先生은 홀로 心 外의 것으로 道를 말씀하시니, 의심컨대 心 外의 道는 至道가 아닌가 합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길 “자세히 經文을 음미해보면 저절로 얻을 것이다. 經에서 ‘神明出焉’이라 하였으니 메인 바가 또한 重한데 어찌 쓰임이 없겠는가? 어찌하여 朝廷을 살펴 보지 않는가? 皇極殿은 王이 밝은 곳을 향하여 다스림을 내는 곳이고, 乾清宮은 王이 어둠을 향하여 편안히 쉬는 곳이다. 皇極殿을 가리켜 군주의 몸이라고 한다면 옳겠는가? 대개 元陽君主가 사물에 호응하여 사용되는 바는 모두 마음에서 일어나는 經綸을 따르는 것이니, 때문에 心으로 주인을 삼은 것이다. 眞에 깃들여 길러져 끊임없이 생기고 변화하는 근본이 되는 것에 이르러서는 홀로 兩腎의 가운데에 저장되니, 때문에 腎보다 더 중요하다. 사실은 腎도 아니고 또 心도 아닌 것이다.”라고 하였다.

#### 陰陽論

陰陽之理，變化無窮，不可盡述，姑舉其要者言之。夫言陰陽者，或指天地，或指氣血，或指乾坤，此對待之體<sup>①</sup>。其實陽統乎陰，天包乎地，血隨乎氣。故聖人作『易』，于乾則曰“大哉乾元，乃統天。”<sup>17)</sup>，于坤則曰“至哉坤元，乃順承天。”<sup>18)</sup>

#### 【校注】

① 體：天本에는 ‘理’로 되어있다.(底本)

陰陽의 이치는 변화가 무궁하여 다 말할 수 없으나, 잠시 그 요점을 말해보겠다. 무릇 陰陽이라 말하는 것은, 혹은 天과 地를 가리키고, 혹은 氣와 血을 가리키며, 혹은 乾과 坤을 가리키니, 이는 對待하는 모습이다. 그 내용은 陽이 陰을 통솔하고 天이 地를 둘러싸며 血이 氣를 따르는 것이다. 故로 聖人이 『易』을 지으심에, 乾에 대해서는 “크도다! 乾元이여. 이에 하늘을 통솔한다.”라고 하였고, 坤에 대해서는

17) 『周易(元)』. 대전. 學民文化社. 1998. p.281.'에 의거하여 인용문의 범위를 조정하여 기재하였다.

18) 『周易(元)』. 대전. 學民文化社. 1998. p.378.'에 의거하여 인용문의 범위를 조정하여 기재하였다.

“지극하도다! 坤元이여, 이에 순히 天을 따른다.”라고 하였다.

古人善体『易』義，治血必先理氣，血脫益氣，故有補血不用四物湯之論。如血虛發熱，立補血湯一方，以黃芪一兩爲君，當歸四錢爲臣，氣藥多而血藥少，使陽生陰長。又如失血暴甚欲絕者，以獨參湯一兩頓煎服，純用氣藥。斯時也，有形之血不能速生，幾微<sup>①</sup>之氣所當急固，使無形生有有形。

【校注】

① 幾微：氣가 隱微함을 가리키니, 무형임을 알 수 있다.(校勘本)

옛 사람들은 『易』의 뜻을 잘 體得하여 血을 다스림에 반드시 理氣를 우선으로 삼아 血脫에 益氣하였으니, 故로 補血에 四物湯을 사용하지 않는 論이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血虛發熱에 ‘補血湯’이라는 한 처방을 만들어 黃芪 1냥으로 君藥을 삼고 當歸 4돈으로 臣藥을 삼아 氣藥은 많고 血藥은 적으니, 하여금 陽을 생성시켜서 陰을 기른 것이다. 또 예를 들면 失血이 갑자기 심하여 목숨이 끊어지려 하는 者에게는 獨參湯 1냥을 한 번에 끓여 마시게 하는데, 순전히 氣藥만 사용한 것이다. 이때에는 有形한 血을 빨리 생성할 수 없고 隱微한 氣를 의당 급히 견고하게 해야 하니, 無形으로 하여금 有形을 생성하게 하는 것이다.

蓋陰陽之妙，原根于“無”也。故曰：“無，名天地之始。”生死·消長，陰陽之常度，豈人所能損益哉？聖人裁成天地之化，輔相<sup>①</sup>天地之宜，每寓扶陽抑陰之微權<sup>②</sup>。方復<sup>③</sup>而先憂七日之來<sup>④</sup>，未濟<sup>⑤</sup>而預有衣枷之備<sup>⑥</sup>，防未然而治未病也。然生而老，老而病，病而死，人所能免。但其間有壽夭長短之差，此岐黃之道所由始。

【校注】

- ① 輔相：補助(校勘本)
- ② 微權：미묘한 임기응변의 法을 가리킨다.(校勘本)
- ③ 復：64괘의 하나로, 震下坤上이다.(底本)
- ④ 七日之來：곧 ‘七日來復(7일 만에 와서 회복하다)’<sup>19)</sup>이다. 陽氣가 剝卦로부터 다하고 復卦가 오는

것을 말하니, 무릇 7일이다.(底本)

⑤ 未濟：64괘의 하나로, 坎下離上이다.(底本)

⑥ 衣枷之備：옷과 일상용품을 준비하다. 患難을 생각하여 예방하는 뜻이 있다.(校勘本)

무릇 陰陽의 妙는 ‘無’에 근원하고 있다. 故로 “無는 天地의 시초를 명명한 것이다.”라고 말하니, 生死와 消長이 陰陽의 일정한 법도이거늘 어찌 사람이 증감(增減)하겠는가? 聖人이 天地의 變化를 재량하여 이루고 天地의 마땅한 바를 도와 바로 잡으매, 때면 陽을 돕고 陰을 누르는 微權에 의지하였다. 巴야흐로 復卦에는 7일 만에 와서 회복함을 먼저 근심하고, 未濟卦에는 미리 옷과 일상용품을 준비하니, 未然에 대비하여 병들기 전에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나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며, 병들면 죽는 것은 사람이 면할 수 없는 바이다. 다만 그 사이에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길고 짧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니, 이는 岐伯과 黃帝의 道가 연유하여 시작되는 바이다.

神農嘗藥，按陰陽而分寒·熱·溫·涼·辛·甘·酸·苦·鹹之辨。凡辛·甘者屬陽，溫·熱者屬陽；寒·涼者屬陰，酸·苦者屬陰。陽主生，陰主殺。司命者欲人遠殺而就生，甘溫者用之，辛熱者用之，使共躋乎春風生長之域。

神農께서 藥을 맛보시고 陰陽을 살펴 寒·熱·溫·涼·辛·甘·酸·苦·鹹으로 구별하여 나누셨다. 무릇 辛·甘은 陽에 속하고 溫·熱도 陽에 속하며, 寒·涼은 陰에 속하고 酸·苦도 陰에 속한다. 陽은 生을 주관하고 陰은 殺을 주관한다. 사람의 生命을 맡은 者는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멀리 하고 生을 따르게 하고자 하니, 甘溫한 氣味를 사용하고 辛熱한 氣味를 사용하여 하여금 春風에 生長하는 곳으로 함께 오르게 한다.

一應苦寒者俱不用。不特苦寒不用，至于涼者亦少用。蓋涼者，秋氣也，萬物逢秋氣不長矣。或時當夏令，暑邪侵入，或過食炙燻·辛熱而成疾者，暫以苦寒一用，中病即止，終非濟生之品。世之慣用寒涼者，聞余言而怪矣。幸思而試之，其利溥<sup>①</sup>哉!

19) 七日來復：“謂消長之道 反復迭至 陽之消 至七日而來復 姤 陽之始消也 七變而成復 故云七日 謂七更也”(周易(亨). 대전. 學民文化社. 1998. p.386-387.)

## 【校注】

① 溥：廣大하다.(底本)

일체 苦寒한 氣味는 모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苦寒한 氣味를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涼한 것에 이르러서도 또한 적게 사용해야 한다. 무릇 涼은 秋氣이니, 萬物이 秋氣를 만나면 자라지 못한다. 혹 여름철에 暑邪가 침입하거나, 혹 炙燔·辛熱한 음식을 많이 먹어 병이 생겼을 때에는 잠시 苦寒한 氣味를 한번 쓸 수 있으나 병이 나오면 곧 그쳐야 되니, 마침내 生命을 건지는 종류는 아닌 것이다. 세상에 寒涼한 藥을 습관처럼 사용하는 자들은 내 말을 듣고 의심할 것이다. 바라건대 생각하고 시험해본다면 그 이로우미 廣大할 것이다!

若夫尊生之士，不須服食<sup>20)</sup>，不須導引<sup>21)</sup>，不須吐納<sup>22)</sup>，能大明生死，幾于道矣。生之門，死之戶。不生則不死。上根<sup>①</sup>頓悟無生<sup>②</sup>，其次莫若寡欲，未必長生，亦可却病。反而求之，人之死，由于生；人之病，由于欲。

## 【校注】

① 上根：根氣가 강한 者이다. 즉 불교에서 수련하여 최고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가리킨다.(校勘本)

② 無生：불교에서 사용하는 名詞로서, 열반(涅槃)과 뜻이 같다.(校勘本)

삶을 존경하는 선비는 모름지기 長生不死의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고 導引할 필요가 없으며 吐納할 필요가 없으니, 生死에 크게 밝으면 道에 가깝게 될 것이다. 生의 문(門)이 死의 문(戶)이다. 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根氣가 강한 사람은 별안간 열반을 깨닫고, 그 다음은 욕심을 줄이는 것이 나오니, 반드시 오래 살진 않아도 또한 병을 물리칠 수 있다. 반대로 구하면, 사람이 죽는 것은 태어남에서 말미암으며,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은 욕심에서 말미암는다.

上工治未病，下工治已病。已病矣，釋其致病之根。由于不謹，急遠房幃，絕嗜欲，庶幾得之。世人服食以圖

20) 服食：道家에서 長生不死의 약을 복용하는 일.

21) 導引：몸과 수족을 屈伸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道家의 養生法.

22) 吐納：吐故納新. 목은 숨을 내쉬고 새로운 숨을 들이마시는 深呼吸法.

長生，惑矣。甚者日服補藥，以資縱欲，則惑之甚也。

上工은 병들기 전에 다스리고 下工은 이미 병든 후에 다스린다. 이미 병들었으면, 병들게 한 근본을 풀어야 한다. 삼가지 앎음에서 말미암았으니 침실을 급히 멀리하고 즐겨하고 좋아하는 욕심을 끊으면 아마 건강을 얻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長生不死의 약을 복용하여 오래 살기를 도모하는 것은 미혹(迷惑)한 것이다. 심함 경우는 날마다 補藥을 복용하는 것에 의지하여 私欲을 누르지 않고 제멋대로 구니, 미혹이 심한 것이다.

天上地下，陰陽之定位。然地之氣每交于上，天之氣每交于下，故地天爲泰<sup>①</sup>，天地爲否<sup>②</sup>。聖人參贊天地，有轉否爲泰之道。如陽氣下陷者，用味薄氣輕之品，若柴胡·升麻之類，舉而揚之，使地道左旋而升于九天<sup>23)</sup>之上；陰氣不降者，用感秋氣肅殺而生，若瞿麥·扁蓄之類，抑而降之，使天道右遷而入于九地<sup>24)</sup>之下。此東垣補中益氣湯萬世無窮之利。不必降也，升清濁自降矣。

## 【校注】

① 泰：64괘의 하나로, 乾下坤上이다.(校勘本)

② 否：64괘의 하나로, 坤下乾上이다.(校勘本)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는 것은 陰陽의 정해진 위치이다. 그러나 땅의 氣가 매번 위로 사귀고 하늘의 氣가 매번 아래로 사귀니, 故로 地天은 泰卦가 되고 天地는 否卦가 된다. 聖人이 天地의 계획<sup>25)</sup>에 참여하여 否를 옮겨 泰를 만드는 道를 두었다. 陽氣가 下陷한 경우에는 味가 없고 氣가 가벼운 종류를 사용하니, 柴胡·升麻와 같은 종류로 들어 올려 하여금 地道가 左旋하여 九天의 위로 오르게 한다. 陰氣가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가을의 肅殺하는 氣를 感受하여 생긴 것을 사용하니, 瞿麥·扁蓄과 같은 종류로 눌러 내려 하여금 天道가 오른쪽으로 옮겨 九地의 아래로 들어가게 한다. 이것이 東垣의 補中益氣湯이 萬世에 무궁무진한 이로우미 되는 것이다. 반드시 내릴 필요가 없으니, 淸한 것을 올리면 濁한 것은 저절로 내려가게 된다.

23) 九天：하늘의 가장 높은 곳. 또 하늘.

24) 九地：땅의 가장 낮은 곳. 九天의 對.

25) 天地의 계획：만물을 化育하는 것을 말한다.

春秋·晝夜，陰陽之門戶。一歲春夏爲陽，秋冬爲陰；一月朔後爲陽，望後爲陰；一日晝爲陽，夜爲陰。又按十二時而分五臟之陰陽。醫者全憑此以明得病之根原，而施治療之方術。

봄·가을과 낮·밤은 陰陽의 門戶이다. 1년 중에 봄·여름은 陽이고 가을·겨울은 陰이다. 1달 중에 초하루 뒤는 陽이고 보름 뒤는 陰이다. 1일 중에 낮은 陽이고 밤은 陰이다. 또 12시를 살펴 五臟의 陰陽을 나눈다. 醫者는 전적으로 이것에 기대어 병의 근원을 분명하게 얻어 치료의 방법과 기술을 베풀어야 한다.

春夏秋冬，非今行夏之時<sup>①</sup>，當依周正建子<sup>②</sup>。冬至一陽生，夏至一陰生，此二至最爲緊要。至者，極也。陰極生陽，絕處逢生，自無而有；陽極生陰，從有而無，陽變<sup>26</sup>陰化<sup>27</sup>之不同也。若春分·秋分，不過從其中平分之耳。然其尤重者，獨在冬至，故『易』曰：“先王以至日閉關。”“閉關”二字，須看得廣。觀『月令』云：“是月齋戒·掩身，以待陰陽之所定。”則不止關市之門矣。

【校注】

① 行夏之時：夏曆을 실행하다. 夏曆은 夏代에 시작되었는데 寅月을 正月로 삼았으니, 곧 지금 농사에 사용하는 曆法이다.(底本)

② 周正建子：周代에는 夏曆의 11월을 歲首로 삼았다. ‘正’은 正月이니 歲首이다. ‘子’는 子月이니 즉 11월이다.(底本)

봄·여름·가을·겨울은 지금 실행되는 夏曆이 아니고 周代에 正月을 子에 세운 것에 의거한 것이다. 冬至에 一陽이 생기고 夏至에 一陰이 생기니, 이 二至는 가장 요긴한 것이다. 至는 지극함이다. 陰이 지극하면 陽이 생기고 막다른 곳에서 살 길을 만나며 無로부터 有가 생긴다. 陽이 지극하면 陰이 생기고 有로부터 無가 생기니, 陽이 변(變)하고 陰이 화(化)하는 것이 같지 않다. 春分·秋分은 그 가운데를 고르게 나눈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유독 冬至에 있다. 故로 『易』에서 “先王께서 冬至일에 關門을 닫으셨다.”라고 하였는데, ‘閉關’ 두 字의 뜻을 모름지기 넓게 보아야 한다. 『月令』을 살펴보면 “이 달에 齋戒(齋戒)하고 몸을 가려 陰陽이 정해지는 바를 기다린다.”라고 하였는데, 다만 關門과 市장의 門을 닫는 것만 뜻하는 것은 아니다.

或問：冬至一陽生，當漸向暖和，何爲臘月大寒，冰雪反盛？夏至一陰生，當漸向清涼，何爲三伏溽暑<sup>①</sup>，酷熱反熾？亦有說乎？曰：此將來者進，成功者退，隱微之際，未易以明也。蓋陽伏于下，逼陰于上，井水氣蒸，而堅冰至也；陰盛于下，逼陽于上，井水寒，而雷電合也。今人病面紅·口渴·煩燥·喘咳者，誰不曰火盛之極，抑孰知其爲腎中陰寒所逼乎？以寒涼之藥進而斃者，吾不知其幾矣。

【校注】

① 溽暑：暑濕한 계절을 가리킨다.(校勘本)

혹자가 問기를 “冬至에 一陽이 생겨 마땅히 점차 따뜻하고 온난함을 향하는데, 어찌하여 음력 신달 大寒에 얼음과 눈이 도리어 성(盛)해지는가? 夏至에 一陰이 생겨 마땅히 점차 시원하고 서늘함을 향하는데, 어찌하여 三伏무더운 계절에 혹독한 더위가 도리어 치성해지는가? 역시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는 ‘장차 오는 것이 進하고 功을 이룬 것은 退한다.’<sup>28</sup>고 말하는 것이니, 은미(隱微)한 사이에 쉽게 밝힐 수 없는 것이다. 무릇 陽이 아래에 었드려 陰을 위로 꺾박하면 雨물물의 氣는 썩지지만 단단한 얼음이 생기고, 陰이 아래에서 성(盛)하여 陽을 위로 꺾박하면 雨물물은 차갑지만 천둥과 번개가 생긴다. 지금 사람이 병들어 面紅·口渴·煩燥·喘咳 등의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火가 지극히 성(盛)하다고 말하지 않겠는가마는, 하지만 腎中의 陰寒에 꺾박받은 것임을 누가 알겠는가? 寒涼한 藥을 주어서 죽은 者가 얼마나 되는지 나는 모르겠구나.

朔望分陰陽者，初一日爲死魄<sup>29</sup>，陰極陽生，初三日

26) 變：萬物이 化하였다가 다시 內容을 充實시키는 過程을 말한다.(韓東錫 著. 宇宙變化의 原理. 서울. 행림출판. 1993. p.31.)

27) 化：一定한 形態에서 다시 分裂無化되어 가는 過程을 말한다.(韓東錫 著. 宇宙變化의 原理. 서울. 행림출판. 1993. p.31.)

28) 정연미. 徐子平『路環子三命消息賦注』의 命理學史的 研究.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37-38.  
29) 死魄：음력 매월 초하루. 달빛이 소멸한 음력 초하루 때이므로 이름.

而朏<sup>①</sup>, 十三日而幾望, 十五則盈矣; 漸至二十已後, 月廓空虛, 海水東流. 人身氣血亦隨之. 女人之經水, 期月而滿, 滿則溢. 陰極而少陽生, 始能受孕. 故望以前屬陽.

【校注】

① 朏 : 음력 매월 초3일을 대신하는 명칭.(底本)

초하루와 보름을 陰陽으로 나누면, 초하루에 死魄이 되며 陰이 지극하면 陽이 생하여 초3일에 초승달이 되고 13일에 보름달에 가까워지며 15일이면 가득 차게 된다. 점차 20일 이후로 가면 달의 크기가 작아지며 바닷물이 동쪽으로 흐른다. 사람 몸의 氣血도 또한 이를 따른다. 여자의 經水도 만 1개월이 되면 가득 차고, 가득 차면 넘친다. 陰이 지극하여 少陽이 생기니 비로소 임신할 수 있다. 故로 보름 이전은 陽에 속한다.

陽病則晝重而夜輕, 陽氣與病氣交旺也; 陰病則晝輕而夜重, 陰氣與病氣交旺也. 若夫陽虛病則晝輕, 陰虛病則夜輕, 陰陽各歸其分也. 治之者既定其時, 以證其病. 若未發之時, 當迎而奪之, 如孫子之用兵, 在山谷則塞淵泉, 在水陸則把渡口; 若正發之時, 當避其銳鋒; 若勢已殺, 當擊其惰歸, 恐曠日持久, 反生他患也.

陽病은 낮에 심하고 밤에 가벼우니, 陽氣가 病氣와 섞여 왕성해지는 것이다. 陰病은 낮에 가볍고 밤에 심하니, 陰氣가 病氣와 섞여 왕성해지는 것이다. 陽虛로 인한 病은 낮에 가볍고 陰虛로 인한 病은 밤에 가벼우니, 陰과 陽이 각각의 부분을 편드는 것이다. 치료하는 者가 이미 그 시기를 정하였으면 그 시기로써 그 병을 證驗한다. 만약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한 때에는 마땅히 맞이하여 빼앗아야 하니, 孫子가 用兵함에 적이 산꼭짜기에 있을 때에는 물의 근원을 막았고 강변에 있을 때에는 나무를 지킨 것과 같다. 만약 한창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마땅히 예봉을 피해야 한다. 만약 기세가 이미 꺾였을 때에는 마땅히 나태하여 물러남을 공격해야 하니, 쓸데없이 세월만 보내면 도리어 다른 병이 생길까 두렵다.

至于或晝或夜, 時作時止, 不時而動, 是純虛之證, 又不拘于晝夜之定候, 當廣服補藥, 以養其正, 如在平

川廣漠, 當清野<sup>30)</sup>千里.

혹은 낮에 혹은 밤에 증상이 때때로 나타났다가 때때로 멈추어 불규칙적으로 나타남에 이르러서는 이는 순전히 虛한 證으로 또한 晝의 정해진 조짐에 구애받지 않는다. 마땅히 補藥을 두루 복용하여 正氣를 길러야 하니, 적이 아득하게 넓은 평야와 하천에 있을 때에는 마땅히 넓은 들을 깨끗이 해야 하는 것과 같다.

又以十二時分配五臟六腑. 自子至午, 行陽之分; 自午至亥, 行陰之分. 仲景云: “少陰之病欲解時, 從子至卯.”<sup>①</sup>乘此陽道方亨之時而投之, 藥易以入. 故仲景『傷寒論』中逐時分治, 不可不考.

【校注】

① 少陰之病欲解時, 從子至卯 : 『傷寒論·辨少陰病脈證并治法』에 보인다. ‘卯’는 原文에 ‘寅’으로 되어 있다.(底本)

또 12時를 가지고 五臟六腑에 짝지을 수 있다. 子時로부터 午時까지는 陽이 行하는 부분이고, 午時로부터 亥時까지는 陰이 行하는 부분이다. 仲景이 “少陰의 病이 풀리려 하는 때는 子時로부터 卯時까지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陽道가 바야흐로 형통한 때를 타서 投藥하면 藥이 쉽게 들어간다. 故로 仲景의 『傷寒論』중에서 時를 따라 나누어 치료하는 방법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年·月·日·時, 皆當各分陰陽, 此其大略也. 獨甲子運氣<sup>①</sup>, 『內經』雖備言之, 往往不驗. 當時大撓<sup>②</sup>作甲子, 卽以本年本月本日本時爲始, 統紀其數如此, 未必能直推至上古甲子年甲子月日時爲曆元<sup>③</sup>也. 『內經』特明氣運有如許之異, 民病亦有如許之別如此. 讀『內經』者, 不可執泥. 譬如大明統曆, 選擇已定, 可信乎? 不可信乎?

【校注】

① 甲子運氣 : 甲은 十干의 처음이고 子는 十二支의 처음이다. 干과 支가 서로 짝을 이뤄 차례에 따라 甲子로부터 癸亥에 이르도록 60번을 다 채우면 한

30) 清野 : 들의 작물을 거두거나 가을을 철거하여 쳐들어오는 적에게 양식 또는 숙사(宿舍)의 편의를 주지 아니함.

바뀌가 된다. 또 ‘六十甲子’라고도 하는데, 古人이 年·月·日·時의 차례에 사용하였다. 甲子運氣는 곧 60년을 1주기로 하여 干과 支를 서로 짝지은 일반적인 규율이다.(校勘本)

② 大撓: 전설 속에 나오는 黃帝의 신하로서, 일찍이 六十甲子를 창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日을 명명하였다.(校勘本)

③ 曆元<sup>31)</sup>: 중국의 고대 曆法을 추산하는 起算點.(底本)

年·月·日·時는 모두 마땅히 각각 陰陽으로 나뉘니, 以上の 내용들이 그 대략이다. 다만 甲子運氣는 『內經』에서 비록 갖추어 말하였지만, 때때로 증험할 수 없다. 당시에 大撓가 甲子를 만들고 곧 本年 本月 本日 本時로 처음을 삼아 그 수(數)를 다스림이 이와 같은데, 반드시 曆元이 되는 태고(太古)의 甲子年 甲子月 甲子日 甲子時까지 직접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內經』에서는 다만 氣運에 약간의 다름이 있고

31) 曆元: “태양에서의 거리에 따라 그 回轉週년이 각각 다른 五星이 지구상에서 보아 동일 度上에서 連珠를 켜 듯이 會聚한다는 것은 거의 없으며 이것은 계산상의 가설에 지나지 않다. 中國曆에서의 曆元이 이와 같은 가상적인 天體狀態에서 求하여 各曆의 基本常數로 逆算하여 積年을 산출하는 까닭에 曆書에 따라서는 數千·數百萬年이라는 방대한 積年을 채용하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다. 中國曆의 曆元이 이와같은 방대한 積年을 채용하였던 ‘七曜齊元之元’은 이론적으로 깊은 의의가 없는 것이어서…….”(李龍範 著. 韓國科學思想史研究.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9. p.154.), “대표적인 예로 1281년에 반포된 원의 수시력(授時曆)이 역원(曆元)으로 그 해인 지원(至元) 신사년(辛巳年, 1281)을 잡은 것을 들 수 있다. 보통 종래의 역법은 역계산의 시점인 역원을 역법 계산과 관련된 모든 주기들이 동시에 출발하는 특정한 시점을 역원으로 잡기 때문에 반포 당시의 시기와의 상당히 먼 과거의 시점을 역원으로 잡게 된다. 따라서 역법 계산을 하게 될 시기와 상당히 가까운 시기를 역원으로 잡아 반포된 수시력은…….”(존 헨더슨 지음, 문중양 역주. 중국의 우주론과 청대의 과학혁명. 서울. 소명. 2004. p.193.) 위의 두 인용문에서도 나타났듯이 曆元은 때에 따라 새로이 설정하여 삼기도 하였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七政算內篇丁卯年交食假令』에 대한 해제에 의하면, 달라진 曆元에 天文常數를 써서 曆法에 의하여 계산하면 이에 따라 應數의 數值가 달라지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것을 曆元으로 하든지 計算値는 동일하다고 한다.(編者未詳. 七政算內篇丁卯年交食假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cited 2012 June 5]: Available from: URL: [http://e-kyujanggak.snu.ac.kr/GDS/GDS\\_VIEW\\_KG.jsp?ptype=list&subtype=kk&bookid=GK03188\\_00&setid=](http://e-kyujanggak.snu.ac.kr/GDS/GDS_VIEW_KG.jsp?ptype=list&subtype=kk&bookid=GK03188_00&setid=))

백성들의 病에도 또한 약간의 구별이 있음을 이와 같이 밝혔으니, 『內經』을 읽는 사람은 얼마일 필요가 없다. 비유하자면 大明의 통일된 曆法은 선택하여 이미 정한 것인데, 믿을 수 있겠는가? 믿을 수 없겠는가?

陽一而實, 陰二而虛. 蓋陰之二, 從陽一所分. 故日乘全体, 月有盈虧. 人之初生, 純陽無陰, 賴其母厥陰乳哺, 而陰始生. 是以男子至二八而精始通, 六十四而精已絕<sup>①</sup>; 女子至二七而經始行, 四十九而經已絕. 人身之陰, 止供三十年之受用.

#### 【校注】

① 絕: 校勘本에는 ‘竭’로 되어있다.

陽은 하나로 實하고 陰은 두 개로 虛하다. 무릇 陰인 두 개는 陽인 하나가 나뉘진 바를 따른 것이다. 故로 日은 전체를 잡고 있고, 月은 가득 차고 이지러짐이 있다. 사람이 처음 태어남에 순전히 陽이고 陰이 없다가, 엄마가 먹여주는 厥陰의 젖에 의지하여 陰이 비로소 생겨난다. 이 때문에 남자는 16세에 이르러 精이 비로소 통하고 64세에 精이 다하여 끊어지며, 여자는 14세에 이르러 經水가 비로소 행해지고 49세에 經水가 다하여 끊어진다. 사람 몸의 陰은 다만 30년간 받아 쓸 양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可見陽常有餘, 陰常不足; 況縱欲者多, 節欲者少. 故自幼至老, 補陰之功一日不可缺. 此“陰”字指陰精而言, 不是泛言陰血. 今之以四物湯補陰者誤也.

陽은 항상 남음이 있고 陰은 항상 부족함을 알 수 있는데, 하물며 사욕(私欲)을 누르지 않고 제멋대로 구는 경우가 많고 사욕을 억제하는 경우가 적음에 있어서야! 故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補陰하는 공적을 하루라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이 ‘陰’字는 陰精을 가리켜 말한 것이지, 보편적으로 말하는 陰血은 아니다. 지금 四物湯으로써 補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王節齋曰: “水虛成病者, 十之八九; 火虛成病者, 十之一二.” 微得其意矣! 褚侍中<sup>①</sup>云: “男子陰已耗而思色以降其精, 則精不出而內敗, 小便道澀如淋. 陽已痿而



復竭之，則大小便牽痛，愈痛則愈便，愈便則愈痛。”玩褚·王二公之言，陰中有水有火，水虛者固多，火衰者亦不少。未有精泄已虛，而元陽能獨全者。況陰陽互爲其根，議補陰者，須以陽爲主，蓋無陽則陰無以生也。

【校注】

① 褚侍中：즉褚澄을 말한다. 아래의 인용문은 『褚氏遺書·精血』에 보인다.(校勘本)

王節齋가 “水가 虛하여 病이 생긴 者가 열에 여덟 아홉이고, 火가 虛하여 病이 생긴 者가 열에 한둘이다.”라고 하였는데, 그 뜻을 조금 얻은 것이다! 褚侍中이 “男子의 陰이 이미 소모되었는데 色慾을 생각하여 그 精을 내리면 精이 나가지 아니하고 안에서 썩어 淋病처럼 소변 길이 막히게 된다. 이미 陽痿가 되었는데 다시 精을 고갈시키면 대변과 소변을 볼 때 당기는 듯 아프고 아프면 아플수록 더욱 변을 보고 싶어 하며 변을 보면 볼수록 더욱 아프게 된다.”라고 하였다. 褚·王 두 사람의 말을 음미해 보면 陰중에 水도 있고 火도 있는데, 水가 虛한 者는 진실로 많고 火가 衰한 者도 또한 적지 않다. 精을 泄하여 이미 虛해졌는데도 元陽이 홀로 온전한 경우는 있지 않다. 하물며 陰陽은 서로 뿌리가 되니, 補陰을 논하는 자들은 모름지기 陽을 위주로 해야 한다. 무릇 陽이 없으면 陰이 생겨날 수 없다.

男子抱陽而負陰，女子抱陰而負陽。人身劈中分陰陽·左右，男子右屬火而爲氣，左屬水而爲血，女子右屬水而左屬火。凡人半肢風<sup>①</sup>者，男子多患左，女子多患右，豈非水不能營耶？

【校注】

① 半肢風：중풍으로 인한 편마비.(底本)

남자는 陽을 안고 陰을 지며, 여자는 陰을 안고 陽을 진다. 사람의 몸을 가운데로 쪼개어 陰陽·左右로 나누면, 남자의 오른쪽은 火에 속하여 氣가 되고 왼쪽은 水에 속하여 血이 되며, 여자의 오른쪽은 水에 속하고 왼쪽은 火에 속한다. 무릇 사람이 중풍으로 편마비를 앓을 때, 남자는 왼쪽을 앓는 경우가 많고 여자는 오른쪽을 앓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 水가 영양하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겠는가?

此皆泛言陰陽之理，有根陰根陽之妙。不窮其根，陰陽或幾乎息矣。談陰陽者，俱曰氣血是矣。詎知火爲陽氣之根，水爲陰血之根。蓋<sup>①</sup>觀之天地間，日爲火之精，故氣隨之；月爲水之精，故潮隨之。然此陰陽·水火，又同出一根，朝朝稟行，夜夜復命，周流而不息，相偶而不離。

【校注】

① 蓋：何不.(校勘本)

이는 모두 陰陽의 이치를 보편적으로 말한 것으로, 근본적인 陰과 근본적인 陽의 신묘(神妙)함이 있다. 그 근본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陰陽이 혹 거의 될 것이다. 陰陽을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氣血이 陰陽이라고 말한다. 火가 陽氣의 근본이고 水가 陰血의 근본임을 어찌 알겠는가! 하늘과 땅 사이에 日은 火의 精이 되니 故로 氣가 따르고, 月은 水의 精이 되니 故로 조수가 따르는 것을 어찌 살펴보지 않는가! 그러나 이 陰陽·水火는 또한 한 뿌리에서 같이 나와 매일 아침 명령을 받아 行하고 밤마다 行命한 바를 아뢰며, 두루 흘러 쉬지 않고 서로 짝지어 떨어지지 않는다.

惟其同出一根而不相離也，故陰陽又各互爲其根。陽根于陰，陰根于陽，無陽則陰無以生，無陰則陽無以化。從陽而引陰，從陰而引陽，各求其屬而窮其根也。世人但知氣血爲陰陽，而不知水火爲陰陽之根；能知水火爲陰陽，而誤認心·腎爲水火之眞，此道之所以不明不行也。

오직 한 뿌리에서 같이 나와 서로 떨어지지 않으니, 故로 陰陽은 또 각각 서로 뿌리가 되는 것이다. 陽은 陰에 뿌리를 두고 陰은 陽에 뿌리를 두니, 陽이 없으면 陰이 생겨날 수 없고 陰이 없으면 陽이 化할 수 없다. 陽으로부터 陰을 끌어당기고 陰으로부터 陽을 끌어당기니, 각각 그 소속을 구하여 그 근본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만 氣血이 陰陽임을 알지만 水火가 陰陽의 뿌리임을 알지 못하고, 水火가 陰陽임을 알 수 있지만 心·腎이 水火의 眞이라고 잘못 알고 있으니, 이것이 道가 밝아지지 않고 행해지지 않는 까닭이다.

試觀之天上，金·木·水·火·土五星見在，而日·月二曜所以照臨于天地間者，非眞陰眞陽乎？人身心·肝·脾·肺·腎五行俱存，而所以運行于五臟六腑之間者，何物乎？有無形之相火，行陽二十五度，無形之腎水，行陰二十五度，而其根則原于先天太極之眞。此所以爲眞也，一屬有形，俱爲後天，而非眞矣，非根矣。謂之根，如木之根而枝葉所由以生者也。

시험 삼아 하늘을 살펴보면, 金·木·水·火·土의 오성(五星)이 나타나 있지만, 日·月인 二曜가 하늘위에서 하늘과 땅 사이를 비추는 것은 眞陰眞陽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사람 몸에 心·肝·脾·肺·腎의 五行이 모두 존재하지만, 五臟六腑의 사이를 운행하는 것은 어떤 物인가? 無形의 相火가 있어 陽分을 25번 돌고 無形의 腎水가 있어 陰分을 25번 도는데, 그 뿌리는 先天 太極의 眞에 근원하고 있다. 이것이 眞이 되는 까닭이니, 한번이라도 有形에 속하면 모두 後天이 되어, 眞이 아니요 根이 아닌 것이다. 根이라는 것은 나무의 뿌리와 같아서, 가지와 잎이 말미암아 생하는 바이다.

既有眞陰眞陽，何謂假陰假陽？曰：此似是而非，多以誤人，不可不知。如人大熱發躁，口渴舌燥，非陽證乎？余視其面色赤，此戴陽也。切其脉，尺弱而無力，寸關豁大而無倫，此系陰盛于下，逼陽于上，假陽之證。余以假寒之藥，從其性而折之，頃刻平矣。

이미 眞陰眞陽이 있으면 假陰假陽은 무엇을 말하는가? 말하자면, 이는 옳은듯하나 아닌 것으로 사람을 의혹케 하는 경우가 많으니 몰라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사람이 크게 熱나고 躁症을 띄며 口渴과 舌燥의 증상이 있으면 陽證이 아니겠는가? 내가 그 얼굴의 붉은색을 보아하니 이는 戴陽이다. 그 脉을 짚어보니 尺脈이 弱하고 無力하며 寸·關脈이 넓고 크며 질서가 없는데, 이는 陰이 아래에서 盛하여 陽을 위로 逼박하는 假陽의 證에 해당된다. 내가 假寒의 藥으로써 그 성질을 좇아 꺾으니 잠시 후에 平정되었다.

如人惡寒，身不離複衣，手足厥冷，非陰證乎？余視其面色滯，切其脉澀，按之細數而有力，此系假寒之證，

寒在皮膚，熱在骨髓。余以辛涼之劑，溫而行之，一汗而愈。

예를 들어 사람이 惡寒하여 겹옷을 벗으려하지 않으며 손발이 厥冷하면 陰證이 아니겠는가? 내가 보니 그 얼굴의 색이 막혀있고, 脈을 짚어보니 澀하며 누르면 細數하면서 有力하였다. 이는 假寒의 證에 해당되는데, 寒이 皮膚에 있고 熱이 骨髓에 있는 것이다. 내가 辛涼한 藥劑로써 따뜻하게 해주고 行하게 하였더니, 한번 汗 흘린 후 나왔다.

凡此皆因眞氣之不固，故假者得以亂其眞。假陽者，不足而視之有餘也；假陰者，有餘而視之不足也。既已識其假矣，而無術以投其所欲，彼亦捍格<sup>①</sup>而不入。『經』曰：“伏其所主，而先其所因，其始則同，其終則異。”<sup>②</sup>可使去邪，而歸于正矣。

【校注】

① 捍格：서로 저촉되고 도무지 맞지 않아 들어가지 못함.(校勘本)

② 『素問·至眞要大論』에 보인다.(校勘本)

무릇 이는 모두 眞氣가 견고하지 못함에서 말미암은 것이니, 故로 가짜는 진짜를 어지럽힐 수 있다. 假陽은 부족한데 有餘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假陰은 有餘한데 不足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미 가짜임을 알았으나, 계략 없이 원하는 바를 투여하면 藥도 또한 證과 서로 저촉되고 도무지 맞지 않아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經』에 “病을 主하는 藥의 성질은 속에 감추고 말미암은 것을 앞세우니, 그냥 逆治를 할 때와 從治를 할 때의 그 시작은 같으나 그 결과는 다르다.”<sup>32)</sup>라고 하였으니, 하여금 邪氣를 제거하고 正氣를 회복시킬 수 있다.

有偏陰偏陽者，此氣稟<sup>①</sup>也。太陽之人，雖冬月身不須綿，口常飲水，色欲無度，大便數日一行，芩·連·梔·柏，大黃·芒硝，恬不知怪；太陰之人，雖暑月不離複衣，食飲稍涼便覺腹痛·泄瀉，參·朮·姜·桂，時不絕口，一有欲事，呻吟不已。此兩等人者，各稟陰陽之一偏者也。

【校注】

32) 박찬국 譯註.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注釋. 경기. 집문당. 2009. p.450.

## ① 氣稟 : 선천적으로 타고난 체질.(校勘本)

陰에 치우침이 있고 陽에 치우침이 있는 것은, 이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체질이다. 太陽의 체질인 사람은 비록 겨울이라도 반드시 솜옷을 입지 않으며 입으로는 항상 물을 마시고 色欲을 절제하지 않으며 대변을 數日에 한번 보는데, 黃芩·黃連·梔子·黃柏과 大黃·芒硝 등의 藥材를 사용하면 편안하여 괴이함을 알지 못한다. 太陰의 체질인 사람은 비록 여름이라도 겹옷을 벗지 않으며 음식물이 조금 서늘하여도 문득 腹痛·泄瀉를 느끼는데, 人參·白朮·乾薑·肉桂 등의 藥材를 때마다 입에서 끊지 않으며 한번이라도 욕심대로 하면 신음이 그칠 않는다.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은 각각 陰과 陽중에서 하나의 치우친 체질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다.

與之談醫, 各執其性之一偏而目爲全体, 常試而漫爲之, 雖與之言, 必不見信. 是則偏之爲害, 而誤人多矣. 今之爲醫者, 鑒其偏之弊而制爲不寒不熱之方, 舉世宗之, 以爲醫中王道. 豈知人之受病, 以偏得之, 感于寒則偏于寒, 感于熱則偏于熱. 以不寒不熱之劑投之, 何以補其偏而救其弊哉? 故以寒治熱, 以熱治寒, 此方士之繩墨<sup>①</sup>也.

## 【校注】

## ① 繩墨 : 法도를 비유한다.(校勘本)

그러한 사람과 더불어 醫學에 대해 이야기하면 각각 성질의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을 잡고 全体라 일컬으며 항상 시험하되 제멋대로 구니, 비록 그와 더불어 말하여도 반드시 믿지 않는다. 이는 곧 치우침이 해(害)가 되는 것으로, 사람을 현혹시킴이 많다. 지금 醫術을 하는 者는 치우침의 해악을 보고 不寒不熱한 처방을 만들고, 온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바를 높여 醫學의 王道로 여긴다. 사람이 病에 걸리는 것은 치우침으로 얻는 것이니, 寒邪에 感觸된 것은 寒에 치우친 것이고 熱邪에 感觸된 것은 熱에 치우친 것임을 어찌 알겠는가! 不寒不熱한 藥劑를 투여하면 어찌 그 치우침을 補하여 그 해악을 고치겠는가? 故로 寒으로써 熱을 다스리고 熱으로써 寒을 다스리니, 이는 方士의 법도이다.

然而苦寒頻進, 而積熱彌熾, 辛熱比年<sup>①</sup>, 而沉寒益滋者, 何耶? 此不知陰陽之屬也. 經曰: “諸寒之而熱者取之陰, 諸熱之而寒者取之陽, 所謂求其屬也.”<sup>②</sup>斯理也, 惟王太僕<sup>③</sup>能窮之, 注云: “寒之不寒, 是無水也; 熱之不熱, 是無火也. 無水者, 壯水之主, 以鎮陽光; 無火者, 益火之原, 以消陰翳.”<sup>④</sup>啓玄達至理于繩墨之外, 而開萬世醫學之源也.

## 【校注】

## ① 比年 : 連年.(校勘本)

## ② 『素問·至真要大論』에 보인다.(校勘本)

③ 王太僕 : 곧 王冰이니, 號는 啓玄子로서 唐代의 醫家이다. 일찍이 太僕令의 벼슬을 지냈다.(校勘本)

④ 『黃帝內經素問·至真要大論』王冰注에 보인다.(校勘本)

그런데 苦寒한 藥材를 자주 사용할수록 積熱이 더욱 치성해지고 辛熱한 藥材를 사용하면 寒이 더욱 증가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 이는 陰陽의 소속을 모르기 때문이다. 經에 “熱證에 寒藥을 썼는데도 여전히 熱證이 나타나는 모든 것은 陰을 도와주고, 寒證에 熱藥을 썼는데도 여전히 寒證이 나타나는 모든 것은 陽을 도와줘야 하니, 이른바 그 소속을 찾아 치료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이 이치는 오직 王太僕이 깊이 연구하였으니, 注에 “寒하였는데 寒해지지 않는 것은 이는 水가 없어서이고, 熱하였는데 熱해지지 않는 것은 이는 火가 없어서이다. 水가 없으면 水의 主를 왕성하게 하여 陽光을 눌러주고, 火가 없으면 火의 原을 복돋아 陰翳를 소멸시킨다.”라고 하였다. 어둠을 열고 지극한 이치에 도달함이 法度의 밖에까지 이르렀으니, 한(限)없이 이어질 醫學의 근원을 연 것이다.

陰陽者, 虛名也; 水火者, 實體也. 寒熱者, 天之淫氣也; 水火者, 人之眞元也. 淫氣痰疾, 可以寒熱藥功之; 眞元致病, 即以水火之眞調之. 然不求其屬, 投之不入. 先天水火, 原屬同宮, 火以水爲主, 水以火爲原<sup>①</sup>. 故取之陰者, 火中求水, 其精不竭; 取之陽者, 水中尋火, 其明不熄. 斯大寒大熱之病, 得其平矣. 偏寒偏熱之士, 不可與言也. 至于高世立言之士, 猶誤認水火爲心腎, 無怪乎後人之懵懵<sup>②</sup>也.

【校注】

① 火以水爲主, 水以火爲原: 校勘本에는 ‘水以火爲主, 火以水爲原’으로 되어 있다.

② 懵懵: 無知한 모양.(校勘本)

陰陽은 虛名이요, 水火는 實體이다. 寒熱은 天의 淫氣요, 水火는 人의 眞元이다. 淫氣가 모여 질병을 양으면 寒熱한 藥으로써 공격하는 것이 옳고, 眞元이 病을 생기게 하였으면 곧 水火의 眞으로써 조절한다. 그러나 그 소속을 구하지 않으면 약을 주어도 들어가지 않는다. 先天의 水와 火는 원래 같은 宮에 속하여, 火는 水로써 主를 삼고 水는 火로써 原을 삼는다. 故로 陰을 取하는 者는 火중에서 水를 구해야 그 精이 마르지 않고, 陽을 取하는 者는 水중에서 火를 찾아야 그 밝음이 꺼지지 않는다. 그리하면 大寒하거나 大熱한 病이 다스려질 것이다. 寒에 치우치고 熱에 치우친 사람들과는 더불어 말할 수 없다. 세상에서 높이 뛰어나 후세에 전할 만한 말을 남긴 사람들에게 이르러서도 오히려 水火를 心腎으로 잘못 알고 있으니, 後人들의 무지한 모습이 괴이할 것이 없다.

五行論

以水·火·土·金·木, 配心·肝·脾·肺·腎, 相生相克, 素知之矣. 諸書有云: 五行唯一, 獨火有二. 此言似是而非. 論五行俱各有二, 奚獨一火哉? 若論其至, 五行各有五, 五五二十五. 五行各具一太極, 此所以成變化而行鬼神也. 今以五行之陰陽生死言之. 木有甲木屬陽, 乙木屬陰. 人身之膽是甲木, 屬足少陽, 肝是乙木, 屬足厥陰. 甲木生于亥而死于午, 乙木生于午而死于亥.

水·火·土·金·木으로써 心·肝·脾·肺·腎에 배속하고相生하며 相克하는 관계는 분디 알고 있다. 여러 책에 “五行은 오직 하나인데 다만 火는 두 개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옳은 것 같지만 잘못된 것이다. 五行이 모두 각각 2개라고 말한다면 어찌 다만 火는 하나이겠는가? 만약 그 지극함을論한다면, 五行은 각각 5개가 있어 5×5=25개이다. 五行은 각각 하나의 太極을 갖추고 있으니, 이것이 變化를 이루고 鬼神을 부리는 까닭이다. 이제 五行의 陰陽과 生死로써

말해보겠다. 木에는 陽에 속하는 甲木이 있고 陰에 속하는 乙木이 있다. 人의 膽은 甲木으로 足少陽에 속하고, 肝은 乙木으로 足厥陰에 속한다. 甲木은 亥에서 生하여 午에서 死하고, 乙木은 午에서 生하여 亥에서 死한다.

火有丙火屬陽, 丁火屬陰. 人身之相火屬手少陽, 心火屬手少陰. 丙火生于寅而死于酉, 丁火生于酉而死于寅. 水有壬水屬陽, 有癸水屬陰. 人身之腎水屬足少陰, 膀胱水屬足太陽. 壬水生于申而死于卯, 癸水生于卯而死于申. 土有戊土屬陽, 己土屬陰. 人身之胃土屬足陽明, 脾土屬足太陰. 戊土生于寅而死于酉, 己土生于酉而死于寅.

火에는 陽에 속하는 丙火가 있고 陰에 속하는 丁火가 있다. 人의 相火는 手少陽에 속하고, 心火는 手少陰에 속한다. 丙火는 寅에서 生하여 酉에서 死하고, 丁火는 酉에서 生하여 寅에서 死한다. 水에는 陽에 속하는 壬水가 있고 陰에 속하는 癸水가 있다. 人의 腎水는 足少陰에 속하고, 膀胱水는 足太陽에 속한다. 壬水는 申에서 生하여 卯에서 死하고, 癸水는 卯에서 生하여 申에서 死한다. 土에는 陽에 속하는 戊土가 있고 陰에 속하는 己土가 있다. 人의 胃土는 足陽明에 속하고, 脾土는 足太陰에 속한다. 戊土는 寅에서 生하여 酉에서 死하고, 己土는 酉에서 生하여 寅에서 死한다.

金有庚金, 有辛金, 庚金屬陽, 辛金屬陰. 人身之肺金屬手太陰, 大腸金屬手陽明. 庚金生于巳而死于子, 辛金生于子而死于巳. 欲察病情者, 專以時日之生旺休囚<sup>①</sup>, 而驗其陰陽之屬. 如膽火旺, 則寅·卯旺而午·未衰; 肝火旺, 則午·未甚而亥·子衰. 五行各以其類推之.

【校注】

① 休囚: ‘失時’, ‘失運’이라는 말과 같다.(底本) ‘休咎’라는 말과 같다. 吉凶이다.(校勘本)

金에는 庚金과 辛金이 있는데, 庚金은 陽에 속하고 辛金은 陰에 속한다. 人의 肺金은 手太陰에 속하고, 大腸金은 手陽明에 속한다. 庚金은 巳에서 生하여 子에서 死하고, 辛金은 子에서 生하여 巳에서 死한다. 病情을 살피고자 하는 者는 오로지 時日의

生·旺·休·囚로써 그 陰陽의 소속을 증험해야 한다. 예를 들어 膽火가 旺하면 寅·卯에 旺하고 午·未에 衰하며, 肝火가 旺하면 午·未에 甚하고 亥·子에 衰한다. 五行의 각각 그 종류로써 유추하면 된다.

獨土·金隨母寄生, 故欲補土·金者, 從寄生處而補其母. 是以東垣有隔二<sup>①</sup>之治, 是從母也; 有隔三<sup>②</sup>之治, 又從母之外家也. 土·金惟寄生, 故其死爲眞死. 惟水·火從眞生, 故其死不死, 絕處逢生矣.

【校注】

① 隔二：五行의 相生관계로써 미루어, 虛하면 그 母를 補하는 治法이다. 예를 들어 土生金하여 土는 金의 母가 되니, 肺病에 脾를 다스린다.(校勘本)

② 隔三：五行의 相生관계로써 미루어, 虛하면 그 母의 母를 補하는 治法이다. 예를 들어 木生火하고 火生土하니, 脾病에 肝을 다스린다.(校勘本)

다만 土·金은 母를 따라 기생하니, 故로 土·金을 補하고자 하는 者는 기생하는 곳을 따라 그 母를 補해야 한다. 때문에 東垣의 隔二의 다스림이 있어 母를 따르는 것이다. 隔三의 다스림이 있으니, 또한 母의 외가(外家)를 따르는 것이다. 土·金은 오직 기생하니, 故로 그 죽음이 眞死이다. 오직 水·火는 眞生을 따르니, 故로 그 죽음이 죽는 것이 아니고 끊어진 곳에서 生을 만난다.

歸庫<sup>①</sup>者, 絕其生氣而收藏也. 返魂<sup>②</sup>者, 續其死氣而變化也. 況水·火隨處有生機: 鑽木<sup>33</sup>可取, 擊石可取, 圓珠可取; 方諸<sup>3</sup>取水, 掘地取水, 承露取水. 若金死不救, 土死不救, 木死不救, 是以余于五行中, 獨重水·火. 而其生克之妙用, 又從先天之根, 而與世論不同.

【校注】

① 歸庫：저승으로 돌아가다. 庫는 府이다.(校勘本)

② 返魂：소생시키다, 소생하다.(校勘本)

③ 方諸：古代 달빛 아래에서 이슬을 받아 물을 모으던 기구.(校勘本)

歸庫는 生氣가 끊어져 거두어서 깊이 간직하는 것

33) 鑽木：옛날, 나무에 구멍을 뚫고 비비어 불을 일으키던 일.

이다. 返魂은 死氣를 이어 變化시키는 것이다. 하물며 水·火가 따르는 곳에는 生機<sup>34</sup>가 있다. 나무에 구멍을 뚫고 비비어 불을 얻을 수 있고, 돌을 부딪쳐 얻을 수 있으며, 둥근 구슬로 얻을 수 있다. 方諸로 물을 얻고, 땅을 파서 물을 얻으며, 이슬을 받아 물을 얻는다. 金과 같은 경우 죽으면 구원하지 못하고 土가 죽으면 구원하지 못하며 木이 죽으면 구원하지 못하니, 때문에 나는 五行가운데 홀로 水·火를 중히 여긴다. 그리고 相生·相克의 묘한 작용은 또한 先天의 뿌리를 따르니, 세상의 의론과는 같지 않다.

世人皆曰水克火, 而余獨曰水養火; 世人皆曰金生水, 而余獨曰水生金; 世人皆曰土克水, 而余獨于水中補土; 世人皆曰木克土, 而余獨升木以培土. 若此之論, 顛倒拂<sup>①</sup>常, 誰則信之? 詎知君相二火, 以腎爲宮. 水克火者, 後天有形之火也; 水養火者, 先天無形之火也.

【校注】

① 拂：違反, 違背.(校勘本)

세상 사람들이 모두 水가 火를 克한다고 말하나 나는 홀로 水가 火를 기른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金이 水를 生한다고 말하나 나는 홀로 水가 金을 生한다고 말하며, 세상 사람들이 모두 土가 水를 克한다고 말하나 나는 홀로 水가운데에서 土를 補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木이 土를 克한다고 말하나 나는 홀로 木氣를 끌어올려 土를 복돋는다. 만약 이와 같은 견해가 거꾸로 되고 常道를 거스른 것이라면 누가 믿겠는가? 君火·相火의 두 火가 腎을 집으로 삼는다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水가 火를 克하는 것은 後天의 有形한 水火이고, 水가 火를 기르는 것은 先天의 無形한 水火이다.

海中之金, 未出砂土, 不經鍛煉, 不畏火, 不克木, 此黃鐘根本<sup>35</sup>. 人之聲音, 出自肺金, 清濁輕重, 丹田所

34) 生機：생존의 기회, 삶의 희망, 살아갈 길.

35) 黃鐘根本：“이 說話에서 필자가 가장 주목한 것은 海中龍이 된 文武왕과 天神이 된 金유신이 마음을 합쳐 내려준 것이 ‘소리로써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대나무라는 사실이다. 필자는 이 대나무가 한국·중국 등의 전통 음악에서 12律 算定의 기준 척도가 되며, 나아가 度·量·衡器 제작의 기

系. 不求其原, 徒事于肺, 抑末也. 今之言補肺者, 人參·黃芪; 清肺者, 黃芩·麥冬; 斂肺者, 五味·訶子; 瀉肺者, 葶藶·枳殼. 病之輕者, 豈無一效? 若本源虧損, 毫不相干.

바다 속의 금은 모래가 많은 흙에서 나오지 않고鍛煉을 거치지 않으며 火를 두려워하지 않고 木을 克하지 않으니, 이는 黃鐘이 萬物의 根本이 되는 것과 같다. 사람의 목소리는 肺金으로부터 나오지만 清濁과 輕重은 丹田에 연계되어 있다. 근원을 찾지 않고 단지 肺만 일삼으면 또한 말단일 뿐이다. 이제 補肺하는 것은 人參·黃芪요, 清肺하는 것은 黃芩·麥冬이요, 斂肺하는 것은 五味子·訶子요, 瀉肺하는 것은 葶藶子·枳殼이라고 말한다. 病이 가벼우면 어찌 조금도 효과가 없겠는가? 만약 本源이 이지러지고 손상되면 털끝만큼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蓋人肺金之氣, 夜臥則歸藏于腎水之中, 丹家謂之母藏子宮·子隱母胎<sup>36</sup>). 此一臟名曰嬌臟, 畏熱畏寒. 腎中有火, 則金畏火刑而不敢歸; 腎中無火, 則水冷金寒而不敢歸. 或爲喘脹, 或爲咳嗽, 或爲不寐, 或爲不食, 如喪家之狗.

무릇 사람의 肺金의 氣는 밤에 잠자리에 들면 腎水 가운데로 돌아가 간직되니, 丹家에서 ‘母는 子宮을 품는다.’ ‘子는 母胎에 숨는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一臟을 嬌臟이라 이름 부르니, 熱을 두려워하고 寒을 두려워한다. 腎중에 火가 있으면 金이 火刑을 두려워하여 감히 돌아가지 못하고, 腎중에 火가 없으면 水가 차가워져 金이 寒으로 인해 감히 돌아가지 못한다. 혹은 호흡이 가빠 기침하며 부어오르고,

준 尺이 되는 黃鍾管 제정을 위해 선택된 특별한 신대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神을 섬길 수 있고 上下가 화합할 수 있는 위대한 음악을 만들며, 우주적 질서를 인간 사회에 구현할 수 있는 도구 제작에 있어 기준 척도가 되는 黃鍾管 제정은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행사였던 것이다.”(김남형. 만과식적 설화의 역사적 의미. 韓國學論集. 2009. 38. p.171.) 즉 十二律의 하나인 黃鐘이 萬事의 根本이 된다는 뜻으로 보인다.

36) 母藏子宮·子隱母胎: “世人皆曰金生水, 而余獨曰水生金”(趙獻可 著, 晏婷婷 校注. 醫貫.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19.)이라고 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子宮·子는 ‘肺金’을 뜻하고 母·母胎는 ‘腎水’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혹은 기침하고 딸꾹질하며, 혹은 잠들지 못하고, 혹은 먹질 못하는 것이 喪家집 개와 같다.

斯時也, 欲補土母以益子, 喘脹愈甚: 清之瀉之, 肺氣日消, 死期迫矣; 惟收斂者, 僅似有理, 然不得其門, 從何而入? 『仁齋直指』云: “肺出氣也, 腎納氣也. 肺爲氣之主, 腎爲氣之本. 凡氣從臍下逆奔而上者, 此腎虛不能納氣歸元也, 毋徒從事于肺. 或壯水之主, 或益火之原, 火向水中生矣.”

이때에 母인 土를 補하여 子를 복돋워주고자 하면 호흡이 가빠 기침하며 부어오르는 것이 더욱 심해질 것이고, 清하고 瀉하면 肺氣가 날로 사라져서 죽을 날이 닥칠 것이며, 다만 收斂하는 것이 그나마 이치가 있는 듯하나, 그러나 그 門을 찾지 못하였으니 어디로부터 들어갈 것인가? 『仁齋直指』에 “肺는 氣를 내보내고, 腎은 氣를 받아들인다. 肺는 氣의 주인이고 腎은 氣의 근본이다. 무릇 氣가 배꼽 아래로부터 거슬러 내달려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이는 腎이 虛하여 氣를 받아들여 근원으로 돌려보내지 못하는 것이니, 단지 肺만 일삼지는 말아야 한다. 혹은 水의 主를 왕성하게 하고, 혹은 火의 原을 복돋아, 火가 水를 향하는 가운데 生한다.”라고 하였다.

若夫土者, 隨火寄生, 卽當隨火而補. 然而補火, 有至妙之理. 陽明胃土隨少陰心火而生, 故補胃土者, 補心火. 而歸脾湯一方, 又從火之外家而補之, 俾木生火·火生土也. 太陰脾土隨少陽相火而生, 故補脾土者, 補相火. 而八味丸一方, 合水火既濟<sup>①</sup>而蒸腐之. 此一理也, 至理也, 人所不知, 人所不信, 余特申言之.

#### 【校注】

① 水火既濟: 水火가 서로 사귀는 상태를 가리킨다. 既濟는 64괘의 하나로, 離下坎上이다.(校勘本)

土는 火를 따라 기생하니, 즉 마땅히 火를 따라 補해야 한다. 그러나 火를 補함에 지극히 묘한 이치가 있다. 陽明胃土는 少陰心火를 따라 生하니, 故로 胃土를 補하려면 心火를 補해야 한다. 그리고 歸脾湯一方은 또한 火의 外家를 따라 補하는 것이니, 木으로 하여금 火를 生하게 하고 火가 土를 生하게 하는 것이다. 太陰脾土는 少陽相火를 따라 生하니, 故로

脾土를 補하려면 相火를 補해야 한다. 그리고 八味丸一方은 水火既濟에 合하여 碎서 腐熟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한 가지 이치이고, 지극한 이치이며, 남들이 알지 못하는 바이고, 남들이 믿지 않는 바이니, 내가 특별히 거듭 말하는 것이다.

蓋混沌之初<sup>①</sup>, 一氣而已, 何嘗有土? 自天一生水而水之凝成處始爲土. 此後天卦位<sup>②</sup>, 艮土居坎水之次也. 其堅者爲石, 而最堅者爲金. 可見水·土·金, 先天之一原也. 又有補子之義. 蓋肺爲土之子, 先補其子, 使子不食母之氣, 其母不衰, 亦見金生土之義.

【校注】

① 混沌之初: 천지개벽 以前을 가리킨다.(校勘本)

② 後天卦位: 文王後天八卦圖의 배열위치를 가리킨다. 震卦에서 시작하여 시계방향으로 순서대로 巽·離·坤·兌·乾·坎·艮卦이다.(校勘本)

무릇 천지개벽 이전은 一氣일 뿐이니, 어찌 일찍이 土가 있었겠는가? 天一이 水를 生한 이후로 水가 湧기어 이루어진 곳이 비로소 土가 된다. 이 後天卦位에서 艮土가 坎水의 다음에 위치한다. 그중 단단한 것은 石이 되고, 가장 단단한 것은 金이 된다. 水·土·金은 先天의 같은 근원에서 말미암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子를 補하는 뜻이 있다. 무릇 肺는 土의 子가 되는데, 먼저 子를 補하면 子로 하여금 母의 氣를 먹지 않도록 하여 그 母가 衰하지 않으니, 또한 金이 土를 生하는 뜻을 알 수 있다.

又有化生之妙, 不可不知. 甲木, 戊土所畏. 畏其所勝, 不得已以己妹嫁之, 配爲夫婦, 後歸外氏成家, 此甲己化土. 其間遇龍則化, 不遇龍則不化. 凡化物以龍爲主. 張仲景立建中湯, 以健脾土. 木曰曲直, 曲直作酸, 芍藥味酸, 屬甲木; 土曰稼穡, 稼穡作甘, 甘草味甘, 屬己土. 酸甘相合, 甲己化土. 又加肉桂, 蓋桂屬龍火, 使助其化也. 仲景立方之妙類如此, 又以見木生土之義.

또 化生하는 妙가 있으니, 알지 못해서는 안 된다. 甲木은 戊土가 두려워하는 바이다. 勝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부득이 자기 누이를 甲木에게 시집보내어 짝지어 夫婦로 삼아 최종적으로 外氏와 따로 한 집을 이루니, 이것이 甲己가 土로 化하는 것이다. 그 사이

에 龍을 만나면 化하고, 龍을 만나지 못하면 化하지 못한다. 무릇 物이 化하는 것은 龍을 위주로 한다. 張仲景은 建中湯을 立方하여 脾土를 튼튼하게 하였다. 木을 曲直이라하고 曲直은 酸味를 만드니, 芍藥은 味가 酸하여 甲木에 속한다. 土를 稼穡이라하고 稼穡은 甘味를 만드니, 甘草는 味가 甘하여 己土에 속한다. 酸味와 甘味가 서로 합하여 甲己가 土로 化한다. 또 肉桂를 加하는데, 무릇 桂는 龍火에 속하여 하여금 그 化를 돕게 한다. 仲景이 立方한 妙한 類型이 이와 같으니, 또한 木이 土를 生하는 뜻을 알 수 있다.

蓋土無定位, 旺于四季, 四季俱有生理, 故及之. 至于木也者, 以其克土, 舉世欲伐之. 余意以爲木藉土生, 豈有反克之理? 惟木鬱于下, 故其根下克. 蓋木氣者, 乃生生<sup>37)</sup>之氣, 始于東方. 蓋不觀之爲政者, 首重農事, 先祀芒神<sup>①</sup>. 芒神者, 木氣也, 春升之氣也, 陽氣也, 元氣也, 胃氣也, 同出而異名也.

【校注】

① 芒神: 즉 句芒이다. 고대 전설에 나오는 木을 주관하던 神, 또는 木神이다.(校勘本) 傳하여 春을 다스리던 神이다. 後世에 또한 농경과 목축의 神으로 여겨 제사지냈다.(底本)

무릇 土는 정해진 위치가 없이 4계절에 왕성한데, 4계절은 모두 生理가 있기 때문에 4계절에 미치는 것이다. 木에 이르러서는 土를 克하는것 때문에 온 세상이 木을 치려고 한다. 나는 생각건대 木이 土에 의지하여 生한다고 여기는데, 어찌 반대로 克하는 이치가 있겠는가? 다만 木은 아래에서 막으니, 故로 그 뿌리가 아래에서 克한다. 무릇 木氣는 곧 生하는 氣로서 東方에서 비롯된다. 政치를 하는 者가 농사를 제일 중요시하여 먼저 芒神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어찌 살피지 않는가! 芒神은 木氣요, 봄에 升發하는 氣요, 陽氣요, 元氣요, 胃氣니, 같이 나왔으니 이름만 다른 것이다.

我知種樹而已, 雨以潤之, 風以散之, 日以暄之, 使得遂其發生長養之天耳. 及其發達既久, 生意已竭, 又

37) 生生: 물건이 끊임없이 생기는 모양. 생물이 발육하여 자꾸 변화하는 모양.

當斂其生生之氣，而歸于水土之中，以爲來春發生之本，焉有伐之之理乎？此東垣『脾胃論』中用升柴以疏木氣，諄諄言之詳也。但未及雨潤風散，與夫歸根復命<sup>38)</sup>之理。余于木鬱論<sup>39)</sup>中備言之。總之申明五行之妙用，專重水火耳。

草木을 다 심으면 비가 그것을 적셔주고 바람이 그것을 헤쳐 주며 태양이 그것을 따뜻하게 해주어, 發生시키고 길러주는 天을 이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發達이 이미 오래됨에 이르러 生意가 이미 다하면 또한 마땅히 生生한 氣를 거두어들여 水土중으로 되돌아가 내년 봄에 發生의 근본으로 삼으니, 어찌 그것을 치는 이치가 있겠는가? 이는 東垣의 『脾胃論』중에 升麻와 柴胡를 사용하여 木氣를 트이게 한 것으로, 지성스럽게 말한 것이 상세하다. 다만 비가 적셔주고 바람이 헤쳐 줌에 이르지 못하면 남편과 함께 뿌리로 돌아가 復命하는 이치가 있다. 내가 木鬱論중에 그것을 갖추어 말하였다. 총괄하여 五行의 妙用을 되풀이하여 설명하건대, 오직 水火가 중요하다.

#### 論五行各有五

以火言之，有陽火，有陰火，有水中之火，有土中之火，有金中之火，有木中之火。陽火者，天上日月之火，生于寅而死于酉。陰火者，炳燭之火，生于酉而死于寅。此對待之火也。水中火者，霹靂火<sup>①</sup>也，卽龍雷之火，無形而有聲，不焚草木，得雨而益熾，見于季春而伏于季秋。

#### 【校注】

① 霹靂火：천둥소리를 수반하는 번개. 霹靂은 빠른 천둥소리이다.(校勘本) 천둥과 번개를 가리킨다.(底本)

火로써 말하자면, 陽火가 있고 陰火가 있으며 水中의 火가 있고 土중의 火가 있으며 金중의 火가 있고 木중의 火가 있다. 陽火는 하늘에 있는 日과 月の 火로서, 寅에서 生하여 酉에서 死한다. 陰火는 환히

38) 復命：사명(使命)을 띤 사람이 그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낀다.

39) 木鬱論：『醫貫·主客辨疑』에 있는 ‘鬱病論’을 말하는 성싶다.

비치는 חות불의 火로서, 酉에서 生하여 寅에서 死한다. 이는 對待하는 火이다. 水中의 火는 霹靂火이니, 곧 龍雷의 火로서 형체는 없고 소리는 있으며 草木을 불사르지 않고 비가 오면 더욱 치성해지는데, 음력 3월에 나타났다가 음력 9월에 숨는다.

原夫龍雷之見者，以五月一陰生，水底冷而天上熱，龍爲陽物，故隨陽而上升；至冬一陽來復，故龍亦隨陽下伏，雷亦收聲。人身腎中相火，亦猶是也。平日不能節欲，以致命門火衰，腎中陰盛，龍火無藏身之位，故游于上而不歸，是以上焦煩熱·咳嗽等證。善治者，以溫腎之藥，從其性而引之歸原，使行秋冬陽伏之令，而龍歸大海，此至理也。

원래 무엇 龍雷가 나타나는 것은 五月에 一陰이 生하여 물밑은 차고 하늘은 더울 때인데, 龍은 陽物인지라 故로 陽을 따라 上升한다. 겨울에 이르러 一陽이 다시 회복되니, 故로 龍은 또한 陽을 따라 아래로 숨고 천둥 또한 소리를 거둔다. 사람 몸의 腎중의 相火가 또한 이와 같다. 평소에 사욕(私欲)을 억제하지 못하여 命門의 火가 쇠약해지고 腎중의 陰이 왕성해지면 龍火가 몸의 정상적인 위치에 간직되지 못하고 그로인해 위로 떠서 되돌아가지 못하니, 때문에 上焦에 煩熱·咳嗽 등의 證이 나타난다. 잘 치료하는 자는 腎을 따뜻하게 하는 藥으로써 그 性을 따라 당겨 근원에 되돌려 하여금 가을과 겨울에 陽이 숨는 令(令)을 행하게 하여 龍이 大海로 되돌아가게 하니, 이는 지극한 이치이다.

奈何今之治陰虛火衰者，以黃柏·知母爲君，而愈寒其腎，益速其斃，良可悲哉！若有陰虛火旺者，此腎水乾枯而火偏盛，宜補水以配火，亦不宜苦寒之品以滅火。壯水之主，以鎮陽光，正謂此也。如燈燭火，亦陰火也，須以膏油養之，不得雜一滴寒水，得水卽滅矣。獨有天上火入于人身，如河間所論六氣暑熱之病，及傷暑中暑之疾，可以涼水濕之，可以苦寒解之。

어찌하여 지금의 陰虛火衰를 치료하는 자들은 黃柏·知母로써 君藥을 삼아 腎을 더욱 차게 하여 죽음을 더욱 빨리하는가! 진실로 슬프도다! 예를 들어 陰虛火旺한 자가 있으면, 이는 腎水가 마르고 火가 치



우쳐 왕성한 것이니 마땅히 水를 補하여 火에 짝지어야 하고, 또한 苦寒한 氣味の 藥으로 火를 꺼서는 안 된다. 水의 主를 왕성하게 하여 陽光을 눌러 준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 예를 들어 환히 비치는 חות불의 火는 또한 陰火이니, 모름지기 기름으로써 길러주고 한 방울의 차가운 물이라도 섞어서는 안 되는데, 물을 얻으면 곧 꺼진다. 다만 하늘의 火가 사람 몸에 들어와서는 河間이 말한 것처럼 六氣暑熱의 病이나 傷暑·中暑의 疾이 되니, 차가운 물로 적실 수 있고 苦寒한 氣味로 풀어줄 수 있다.

其餘爐中火者，乃灰土中無焰之火，得木則烟，見濕則滅，須以炭培，實以溫燼<sup>①</sup>人身脾土中火，以甘溫養其火，而火自退。經曰“勞者溫之”<sup>②</sup>，“損者溫之”<sup>③</sup>。甘能除大熱，溫能除大熱，此之謂也。

【校注】

① 溫燼：溫熱한 불로 태우고 남은 물건.(校勘本)

②, ③：『素問·至眞要大論』에 보인다.(校勘本)

그 다음 화로 속의 火는 곧 재와 흙속의 불꽃 없는 화로서, 木을 얻으면 연기가 나고 濕을 만나면 꺼지니, 모름지기 숯으로써 복돋워야한다. 溫燼으로써 사람 몸의 脾土중의 火를 實하게 하는 것은 甘溫한 氣味로써 그 火를 기르는 것과 같으니, 그리하면 火는 자연히 물러날 것이다. 經에 “虛勞한 자는 溫養하고”<sup>40)</sup>, “氣가 損한 것은 溫養하고”<sup>41)</sup>라고 하였다. 甘味が 大熱을 제거할 수 있고 溫이 大熱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空中之火，附于木中，以常有坎水滋養，故火不外見。惟乾柴生火，燎原不可止遏，力窮方止。人身肝火內熾，鬱悶煩躁，須以辛涼之品發達之。經曰“木鬱則達之，火鬱則發之”<sup>④</sup>，使之得遂其炎上之性。若以寒藥下之，則愈鬱矣；熱藥投之，則愈熾矣。

【校注】

④ 『素問·六元正紀大論』에 보인다.(校勘本)

空中의 火는 木에 의지하는데, 항상 坎水가 길러

주기 때문에 火가 겹으로 나타나진 않는다. 다만 마른 뿔나무가 火를 일으키면 맹렬한 기세로 타고르는 불을 저지하고 막을 수 없으니, 힘이 다해야 바야흐로 그친다. 사람 몸의 肝火가 안에서 치성하여 鬱悶·煩躁하면 모름지기 辛涼한 氣味の 藥으로써 發散·條達시킨다. 經에 “木이 鬱한 경우는 條達시키고, 火가 鬱한 경우는 發散시키고”<sup>42)</sup>라고 하였는데, 하여금 火의 炎上하는 성질을 따르게끔 한다. 만약 寒藥으로 下시키면 더욱 鬱할 것이고, 熱藥을 투여하면 더욱 치성해질 것이다.

金中火者，凡山中有金銀之礦，或五金<sup>43)</sup>埋瘞之處，夜必有火光。此金鬱土中而不得越，故有光輝發見于外。人身皮毛空竅中，自覺鍼刺蚊咬，及巔頂如火炎者，此肺金氣虛，火乘虛而現，肺主皮毛也故也。經曰：“東方木實，因西方金虛也。補北方之水，即所以瀉南方之火。”<sup>⑤</sup>雖曰治金中之火，而通治五行之火，無余蘊矣。

【校注】

⑤ 『難經·七十五難』에 보인다. 文字에 차이가 있다.(校勘本)

金중의 火는, 무릇 산속에 金·銀의 광물이 있거나 혹은 五金이 묻힌 곳은 밤에 반드시 불빛이 있다. 이는 金이 土가운데 막혀서 넘지 못하는 것이니, 故로 빛이 외부로 나타난다. 사람 몸의 皮毛나 空竅에 鍼으로 찌르거나 모기가 무는 것과 같은 自覺 및 머리 꼭대기에 火炎이 이글거리는 것 같은 것은, 이는 肺金의 氣가 虛하고 火가 虛를 乘하여 나타나는 것인데, 肺가 皮毛를 주관하기 때문이다. 經에 “東方의 木이 實하면 因하여 西方의 金이 虛해진다. 北方의 水를 補해야하니, 즉 南方의 火를 瀉해주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비록 金중의 火를 다스린다고 말했으나 五行의 火를 모두 다스리는 것이니, 남는 것은 없다.

以水言之，有陽水，有陰水，有火中之水，有土中之水，有金中之水，有木中之水。陽水者，坎水也，氣也。

40) 박찬국 譯註.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注釋. 경기. 집문당. 2009. p.447.

41) 박찬국 譯註.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注釋. 경기. 집문당. 2009. p.447.

42) 박찬국 譯註.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注釋. 경기. 집문당. 2009. pp.349-350.

43) 五金：금(金), 은(銀), 동(銅), 철(鐵), 석(錫).

希夷先生<sup>①</sup>『陰陽消息論』曰：“坎以一陽陷于二陰，水氣潛行地中，爲萬物受命根本。蓋潤液也，氣之液也。”『月令·于仲秋』云：“殺氣<sup>44</sup>浸盛，陽氣日衰，水始涸。”是水之涸，地之死也。『于仲冬』云：“水泉動，是月一陽生<sup>45</sup>。”是水之動，地之生也。謂之火中之水可也，謂之土中之水可也。

【校注】

① 希夷先生：즉 陳搏이니，字는 圖南이요 自號는 扶搖子로，五代末 宋初의 道士이다. 華山에 숨어 지냈는데，宋·太宗이 ‘希夷先生’이란 號를 내렸다. 著書로는 『無極圖』，『先天圖』 및 『指玄篇』이 있다.(校勘本)

水로써 말하자면，陽水가 있고 陰水가 있으며 火중의 水가 있고 土중의 水가 있으며 金중의 水가 있고 木중의 水가 있다. 陽水는 坎水이니，氣이다. 希夷先生의 『陰陽消息論』에 “坎卦는 一陽이 二陰사이에 빠져 있는 것인데，水氣가 땅 속으로 다니면서 萬物이 命을 받는 根本이 된다. 무릇 潤液은 氣의 液이다.”라고 하였다. 『禮記·月令』 仲秋<sup>46</sup>에 “쌀쌀한 기운은 점차 왕성해지고 陽氣는 날로 쇠약해지며 물은 비로소 마르게 된다.”라고 하였는데，여기서 水가 마른다는 것은 땅이 死한다는 것이다. 『禮記·月令』 仲冬에 “샘물이 솟아 움직이니，이 달에 一陽이 생겨난다.”라고 하였는데，여기서 水가 動한다는 것은 땅이 生한다는 것이다. 샘물을 火중의 水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고，土중의 水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

陰水者，兌澤<sup>①</sup>也，形也. 一陰上徹于二陽之上，以有形之水普施萬物，下降爲資生之利澤. 在上即可謂雨露之水，在下即爲大溪之水. 人之飲食入胃，命門之火蒸腐水穀，水穀之氣上熏于肺. 肺通百脉，水精四布，五經并行，上達皮毛，爲汗·爲涕·爲唾·爲津；下濡膀胱，爲便·爲液. 至于血，亦水也，以其隨相火而行，故其色獨紅. 周而復始，滾滾<sup>47</sup>不竭. 在上即可爲天河水，在下

即爲長流水<sup>48</sup>. 始于西北天門<sup>②</sup>，終于東南地戶<sup>③</sup>. 正所謂黃河之水天上來，奔流到海不復回. 故黃河·海水，皆同色也.

【校注】

① 兌澤：兌는 8괘의 하나로，沼澤을 상징한다. 또 64괘의 하나로 兌下兌上이다.(校勘本)

② 西北天門：天門은 天宮의 門을 말한다. 옛날 사람들은 天의 門戶가 서북방에 열려 있다고 인식하였다.(校勘本)

③ 東南地戶：戶는 외쪽 문이다. 이는 넓게 門을 가리킨다. 옛날 사람들은 地의 門戶가 동남방에 열려 있다고 인식하였다.(校勘本)

陰水는 兌澤이니，形이다. 一陰이 二陽의 위로 뚫고 올라간 것인데，有形한 水로써 萬物에 두루 베풀고 하강하여서는 생장에 도움을 주는 이로운 연못이 된다. 위에 있으면 곧 비와 이슬의 水라고 말할 수 있고，아래에 있으면 곧 큰 시내의 水가 된다. 사람이 먹은 음식이 胃에 들어가면 命門의 火가 水穀을 쪼서 腐熟시키면，水穀의 氣는 위로 肺에 스며든다. 肺는 모든 脉에 통하여 水精을 사방으로 퍼뜨리고 五臟의 經脈과 아울러 行하니，위로는 皮毛에 도달하여 땀이 되고 콧물이 되며 침이 되고 津이 된다. 아래로는 膀胱을 적서 소변이 되고 液이 된다. 血에 이르러서는 또한 水로서，相火를 따라 行하기 때문에 그 색이 홀로 붉다. 두루 미치고 다시 시작하니，滾滾하게 흐르는 것이 다하지 않는다. 위에 있으면 곧 銀河水라 할 수 있고，아래에 있으면 곧 長流水라 할 수 있다. 西北방의 天門에서 시작하여 東南방의 地戶에서 끝난다. 바로 이른바 黃河의 水가 하늘에서 내려와 세차게 흘러 바다에 도달하나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故로 黃河와 바닷물은 모두 같은 색이다.

金中之水，礦中之水銀是也. 在人身爲骨中之髓，至精至貴，人之寶也.

金중의 水는 光물중의 水銀이 이것이다. 사람 몸에 있어서는 뼈 속의 骨髓에 해당되는데，지극히 精微롭고 지극히 귀한 것으로 사람의 보배이다.

47) 滾滾：물이 세차게 흐르는 모양.

48) 長流水：끊이지 않고 늘 흐르는 물.

44) 殺氣：추동(秋冬)의 한기(寒氣).

45) 是月一陽生：禮記에는 없다.(禮記(亨). 대전. 學民文化社. 2005. p.144.)

46) 『禮記·月令』 仲秋：『禮記(亨). 대전. 學民文化社. 2005.』의 편제를 참고하여 번역을 이와 같이 하였다. 다음의 『禮記·月令』 仲冬도 이와 같다.

木中水者, 巽木<sup>①</sup>入于坎水而上出, 其水即木中之脂膏. 人身足下有涌泉穴, 肩上有肩井穴, 此暗水潛行之道. 凡津液潤布于皮膚之內者, 皆井泉水也. 夫水有如許之不同, 總之歸于大海. 天地之水, 以海爲宗; 人身之水, 以腎爲源. 而其所以能晝夜不息者, 以其有一元之乾<sup>②</sup>氣爲太極耳. 此水中之五行也. 明此水·火之五行, 而土·木·金可例推矣. 經曰: 紀于水火, 餘氣可知<sup>③</sup>.

#### 【校注】

① 巽木 : 巽은 8괘의 하나로, 風·木을 상징한다. 또 64괘의 하나로, 巽下巽上이다.(校勘本)

② 一元之乾 : ‘命門之火’를 가리킨다.(校勘本)

③ 紀于水火, 餘氣可知 : 『內經』, 『難經』, 『傷寒論』을 조사한 결과,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는다.(校勘本)

木중의 水는 巽木이 坎水에 들어가 위로 나온 것이니, 그 水는 곧 木중의 기름이다. 사람 몸의 발아래에는 涌泉穴이 있고 어깨 위에는 肩井穴이 있는데, 이는 水가 몰래 속으로 흐르는 길이다. 무릇 皮膚의 안쪽을 널리 적셔주는 津液은 모두 우물물이다. 무릇 水에는 약간의 다름이 있으나, 모두 큰 바다로 돌아간다. 天地의 水는 바다로써 근본을 삼고, 사람 몸의 水는 腎으로써 근원을 삼는다. 그리고 밤낮 쉬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은 太極으로서의 一元之乾氣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水중의 五行이다. 이 水·火의 五行에 밝으면 土·木·金의 五行은 유추하여 알 수 있다. 經에 “水·火로 실마리를 잡으면 나머지 氣는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 2. 『內經』에 사용된 문장의 형식

趙獻可는 『素問·靈蘭秘典論』에 나오는 “心者, 君主之官”과 “主不明則十二官危”의 문장을 거론하며 12官이 아니라 11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內經』에 사용된 문장의 형식을 검토함으로써 그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보겠다.

『素問·上古天真論篇』에 “腎者主水, 受五臟六腑之精而藏之, 故五藏盛, 乃能寫.”<sup>49)</sup>라고 하였다. 腎이

받아들이는 精의 공급처를 ‘五臟六腑’라고 표시하였으니, 腎자체가 포함된 표현이다.

『五臟別論篇』에 “歧伯說: 胃者水穀之海, 六腑之大源也. 五味入口, 藏於胃以養五臟氣, 氣口亦太陰也, 是以五臟六腑之氣味, 皆出於胃, 變見於氣口.”<sup>50)</sup>라고 하였다. 胃가 六腑의 大源이라는 표현이나 五臟六腑의 氣味가 모두 胃에서 나온다는 표현은 모두 胃자체가 포함된 표현이다.

『太陰陽明論篇』에 “歧伯曰: 足太陰者三陰也, 其脈貫胃, 屬脾, 絡噎<sup>51)</sup>, 故太陰爲之行氣於三陰. 陽明者表也, 五臟六腑之海也, 亦爲之行氣於三陽.”<sup>52)</sup>라고 하였다. 太陰이 三陰에 行氣한다는 표현과, 陽明이 五臟六腑의 바다이고 三陽에 行氣한다는 표현은 모두 主체가 포함된 표현이다.

『熱論篇』에 “陽明者, 十二經脈之長也.”<sup>53)</sup>라고 하였다. 十二經脈에 陽明이 포함된 표현이다.

『逆調論篇』에 “陽明者, 胃脈也, 胃者, 六腑之海, 其氣亦下行.”<sup>54)</sup>이라고 하였다. 六腑에 이미 胃가 포함되어 있다.

『痿論篇』에 “五臟因肺熱葉焦, 發爲痿躄, 此之謂也.”<sup>55)</sup>라고 하였다. 五臟은 肺가 포함된 표현이다. 계속하여 “歧伯曰: 陽明者五臟六腑之海, 主潤宗筋, 宗筋主束骨而利機關也.”<sup>56)</sup>라고 하였다. 이 역시 五臟六腑에 陽明이 포함된 표현이다.

『解精微論篇』에 “夫心者, 五臟之專精也, 目者其竅也, 華色者其榮也.”<sup>57)</sup>라고 하였다. 五臟에 心자체가

50)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素問譯解』.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p.102.

51) 인용문에 ‘噎’로 되어 있는 것을 ‘박찬국 譯註.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注釋. 경기. 집문당. 2009. p.559.’에 의거하여 ‘噎’으로 고쳤다.

52)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素問譯解』.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pp.246-247.

53)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素問譯解』.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p.255.

54)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素問譯解』.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p.271.

55)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素問譯解』.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p.339.

56)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素問譯解』.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p.341.

57)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素問譯解』.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p.701.

49)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素問譯解』.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p.8.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다.

『靈樞·本神』에 “脾藏營，營舍意，脾氣虛則四肢不用，五臟不安，實則腹脹經澁不利。”<sup>58)</sup>라고 하였다. 五臟이 不安하다 하였으니, 脾가 이미 포함된 표현이다. 계속하여 “腎藏精，精舍志，腎氣虛則厥，實則脹。五臟不安。”<sup>59)</sup>라고 하였다. 이 역시 五臟이 不安하다 하였으니, 腎이 이미 포함된 표현이다.

『口問』에 “岐伯曰：心者，五臟六腑之主也；……故悲哀愁憂則心動，心動則五臟六腑皆搖。”<sup>60)</sup>라고 하였다. 心이 五臟六腑의 주인이란 표현이나 心이 동하면 五臟六腑가 모두 요동한다는 표현은 心자체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다.

『師傳』에 “岐伯曰：五臟六腑者，肺爲之蓋，巨肩陷咽，候見其外。”<sup>61)</sup>라고 하였다. 肺가 五臟六腑의 덮개가 된다 하였으니, 肺자체가 이미 포함된 표현이다. 계속하여 “岐伯曰：五臟六腑，心爲之主，缺盆爲之道，髑骨有餘，以候鬲。肝爲之將，脾爲之衛，腎爲之主外。”<sup>64)</sup>라고 하였다. 心·肺·肝·脾·腎이 제각각 五臟六腑를 위해 맡은바 역할을 하고 있으니, 역시 각각의 자신을 포함한 표현이다.

『五癆津液別』에 “五臟六腑，心爲之主，耳爲之聽，目爲之候，肺爲之相，肝爲之將，脾爲之衛，腎爲之主外。”<sup>64)</sup>라고 하였다. 心·肺·肝·脾·腎이 제각각 五臟六腑를 위해 맡은바 역할을 하고 있으니, 역시 각각의 자신을 포함한 표현이다.

『五味』에 “伯高曰：胃者，五臟六腑之海也，水谷皆入於胃，五臟六腑，皆稟氣於胃。”<sup>65)</sup>라고 하였다. 앞뒤

에 나오는 五臟六腑에 각각 胃가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다.

『動輿』에 “胃爲五臟六腑之海，其清氣上注於肺，肺氣從太陰而行之。”<sup>66)</sup>라고 하였다. 앞서 나왔듯이 胃가 포함된 五臟六腑란 표현을 쓰고 있다.

『邪客』에 “心者，五臟六腑之大主也，精神之所舍也，其藏堅固，邪弗能容也。”<sup>67)</sup>라고 하였다. 大主인 心이 五臟六腑에 포함되어 있는 표현이다.

『九鍼論』에 “一者，天也。天者，陽也。五藏之應天者肺，肺者五藏六腑之蓋也。”<sup>68)</sup>라고 하였다. 肺가 五臟六腑의 덮개라 하였으니, 역시 肺자체가 포함된 표현이다.

이상에서 『素問』과 『靈樞』에 나타난 여러 문장들을 살펴보았다. 위에 예시된 문장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떤 주체가 다른 객체들에 영향을 미칠 때 그 영향의 범위를 주체+객체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맨 마지막의 『九鍼論』에 나타난 문장을 예로 들겠다. 폐는 덮개라 하였으니 폐를 제외한 4臟과 6腑를 덮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표현상에 있어서 산술적으로 엄밀히 따져서 문장을 만든다면 ‘肺者四藏六腑之蓋’라고 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위의 여러 문장에서 살펴보았듯이 『內經』에서는 ‘4臟, 5腑, 4臟6腑, 5臟5腑, 2陰, 2陽’이라는 표현 보다는 통상적으로 ‘5臟, 6腑, 5臟6腑, 3陰, 3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서론에서 제시하였듯이 趙獻可가 論據로 삼은 “12官이 위태롭다는 것은 당연히 11官 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58)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靈樞譯解』.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p.88.  
59)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靈樞譯解』.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p.89.  
60)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靈樞譯解』.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p.259.  
61)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靈樞譯解』.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p.268.  
62)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靈樞譯解』.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p.268.  
63)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靈樞譯解』.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p.269.  
64)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靈樞譯解』.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p.295.

65)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靈樞譯解』.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p.402.  
66)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靈樞譯解』.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p.431.  
67)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靈樞譯解』.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p.494.  
68)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靈樞譯解』.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p.575.

### 3. ‘主’의 의미

#### 1) 『內經』에서 뜻하는 心·君主로서의 ‘主’.

방정균(69)은 논문을 통하여 『黃帝內經』의 心의 概念을 연구하였으니, 有關한 부분을 정리하여 ‘主’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心은 一身을 主宰하며 생사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生之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君主로서의 지위를 갖는데 있어 중요시되는 것은 ‘神明’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神明에 대해서 王冰, 馬蒔, 張介賓 등의 글을 인용하여 정신활동을 통괄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어 『內經』에서 인간의 神明은 心과 관련이 있고, 감각·지식·인식·사유 등의 정신활동을 포괄하는 생명활동의 근원 또는 법칙으로서 통괄하여 설명하며, 이러한 神明이 心에 갈무리되기 때문에 心이 君主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 2) 『醫貫』에서 뜻하는 命門으로서의 ‘主’

해석을 통하여 얻은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사물이 있으면 가리킬 수 있고 형상이 있으면 볼 수 있어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을 것이다. 오직 無形과 無物인지라, 때문에 예로부터 聖賢들이 心을 연유하여 論을 세웠으나 마침내 그 실체를 직접 가리키지는 못한 것이다.”<sup>70)</sup>라고 하여 ‘主’를 無形·無物로 규정하고 있다.

“무릇 이 주인은 氣血의 뿌리이고 生死의 관문이며 十二經의 버리이다.”<sup>71)</sup>라고 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기능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腎

에 이것이 없으면 作強을 할 수 없어 技巧가 나오지 못한다. 膀胱에 이것이 없으면 三焦의 氣가 변화하지 못하여 水道가 行하지 못한다. 脾胃에 이것이 없으면 水穀을 찌고 소화시키지 못하여 五味가 나오지 못한다. 肝膽에 이것이 없으면 將軍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여 謀慮가 나오지 못한다. 大腸과 小腸에 이것이 없으면 變化가 일어나지 않아 大小변이 막힌다. 心에 이것이 없으면 神明이 어두워져 萬事に 應하지 못한다. 이것이 이른바 주인이 밝지 못하면 十二官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다.”<sup>72)</sup>라고 하였으니, 十二官이 원활한 기능을 하게끔 ‘主’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主’의 위치에 대한 언급도 있으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命門의 無形한 火는 兩腎의 有形한 가운데에 있어 黃庭이 된다.”<sup>73)</sup>고 하였고, “命門은 사람 몸의 가운데에 있는데, 배꼽과 마주보는 脊骨에 붙어있다. 위로부터 아래로 세면 十四椎요, 아래로부터 위로 세면 七椎이다. 『內經』에 이르길 ‘七節의 옆에 小心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곳이 兩腎이 머물러 있는 곳이다. 왼쪽 부근의 하나의 腎은 陰水에 속하고 오른쪽 부근의 또 하나의 腎은 陽水에 속하여, 각각 1촌5푼 떨어져 있다. 중간이 命門이 거처하는 官이니, 즉 太極圖에서의 흰 구역이다.”<sup>74)</sup>라고 하여,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아울러 “이름 지어 命門이라 하는데, 이것이 眞君이요 眞主며 곧 몸의 太極이니 형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兩腎의 가운데, 이곳이 命門의 편안한 집이다.”<sup>75)</sup>라고 하여, 命門이 ‘主’이자 곧 太極임을 말하고 있다.

69) 방정균, 『黃帝內經』의 心의 概念과 藏象에 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p.48-49.

70) “若有物可指, 有形可見, 人皆得而知之矣. 惟其無形與無物也, 故自古聖賢因心立論, 而卒不能直指其實.”

71) “蓋此一主者, 氣血之根, 生死之關, 十二經之綱維.”

72) “腎無此, 則無以作強, 而技巧不出矣; 膀胱無此, 則三焦之氣不化, 而水道不行矣; 脾胃無此, 則不能蒸腐水穀, 而五味不出矣; 肝膽無此, 則將軍無決斷, 而謀慮不出矣; 大小腸無此, 則變化不行, 而二便閉矣; 心無此, 則神明昏, 而萬事不能應矣. 此所謂主不明則十二官危也.”

73) “命門無形之火, 在兩腎有形之中, 爲黃庭.”

74) “命門在人身之中, 對臍附脊骨. 自上數下, 則爲十四椎, 自下數上, 則爲七椎. 『內經』曰: ‘七節之旁, 有小心.’ 此處兩腎所寄, 左邊一腎屬陰水, 右邊一腎屬陽水, 各開一寸五分. 中間是命門所居之官, 即太極圖中之白圈也.”

75) “名曰命門, 是爲眞君眞主, 乃一身之太極, 無形可見. 兩腎之中, 是其安宅也.”

## IV. 고찰

### 1. 『內經』十二官論과 사람의 ‘主’

본론의 2에서 『內經』에 쓰인 여러 문장들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趙獻可가 十二官중의 心은 ‘主’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論據로 삼은 “12官이 위태롭다는 것은 당연히 11官 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의 著作중에 『內經鈔』와 『素問注』가 있을 만큼 『內經』에 식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다소 무리한 주장으로 論據를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 본론의 번역을 통하여 그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다. 아래 번역한 내용을 살펴 보자.

“내가 지극정성으로 이 論을 반드시 밝히고자 하는 까닭은, 세상에서 養生하는 사람들과 病을 치료하는 사람들이 꼭 命門을 君主라 여기고 ‘火’라는 한 글자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자 함이다.”<sup>76)</sup>

“내가 지금 근원에 돌아가는 길을 직접 가리켜 함께 보여줄 것이다.”<sup>77)</sup>

“나의 이 論은 오랜 세월 밝혀지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한 것이니, 보는 사람들은 나의 論이 동떨어졌다고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sup>78)</sup>

“대개 元陽君主가 사물에 호응하여 사용되는 바는 모두 마음에서 일어나는 經絡을 따르는 것이니, 때문에 心으로 주인을 삼은 것이다. 眞에 깃들여 길러져 끊임없이 생기고 변화하는 근본이 되는 것에 이르러서는 홀로 兩腎의 가운데에 저장되니, 때문에 腎보다 더 중요하다. 사실은 腎도 아니고 또한 心도 아닌 것이다.”<sup>79)</sup>

이처럼 趙獻可는 자신의 학술적 견해에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命門과 관련한 현대의 연구 중에 이용태와 김완희는 “以上을 綜合하면 命門은 先天之氣를 받아 胎兒의 形態形成과 五臟六腑의 形成 및 發育을 維持하며 調節하는 機能으로 觀察되고, 三焦의 機能을 通하여 五臟六腑와 十二經絡을 統制 調節하며, 腎氣와 關聯하여 精神活動 및 生殖活動으로 發顯되는 機能이며, 特히 眞氣와 關聯되어 生命이 危急한 경우에 對處하는 機能으로서 이는 곧 生命現狀의 總和로 觀察되는 概念임을 알 수 있다.”<sup>80)</sup>라고 하였고, 전학수와 노영균은 “韓醫學의 命門은 어느 局所의인 場所가 아니고 실은 命門시스템을 指稱한다. 흔히 丹田시스템이다. 人體의 命門을 통하여 人體는 精을 形成한다고 본다. 精이란 人體의 命門시스템을 통하여 統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 命門은 人體의 모든 機關에 氣運을 주는 바탕인 것이며, 正名! 이름 그대로 命門이요, 氣穴이다.”<sup>81)</sup>라고 하였으며, 신흥목과 김길현은 命門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통해 “1. 命門은 有名而無形으로 생명활동의 중심이 되는 元點을 想定한 生化之源을 意味하며 先天의 水火之氣 즉 眞陰과 眞陽을 내포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命門의 생리작용은 後天의 氣血을 化生하여 人體의 생명활동을 영위하며 元氣의 別使인 三焦를 통하여 全身의 생리활동을 조절한다 하겠다. 3. 命門의 부위설정은 人身의 중심점으로 兩腎 사이의 一寸五分에 위치하는, ‘黃庭’의 개념으로 인식함이 타당하리라 본다.”<sup>82)</sup>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여, 趙獻可의 견해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니, 趙獻可의 命門에 대한 학술적 견해가 실로 탁월한 식견임을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를 피력하기 위해 『素問·靈蘭秘典論』의 “心者, 君主之官”과 그 밑의 “主不明, 則十二官危”라는 문장을 빌미삼은 것으로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그렇다면 문장의 형식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를 떠나, 『素問·靈蘭秘典論』에서 말한 君主로서의 ‘主’와 『醫貫』에서 말한 命門으로서 眞君·眞主인 ‘主’를 어떻게 받

76) “余所以諄諄必欲明此論者, 欲世之養生者·治病者, 的以命門爲君主, 而加意于‘火’之一字.”

77) “余今直指其歸元之路而明視之.”

78) “小子之一論, 闢千古之未明, 見者慎勿以爲迂.”

79) “蓋元陽君主之所以爲應事接物之用者, 皆從心上起經絡, 故以心爲主. 至于栖眞養息, 而爲生生化化之根者, 獨藏于兩腎之中, 故尤重于腎. 其實非腎而亦非心也.”

80) 이용태, 김완희. 命門에 對한 考察. 동의생리학회지. 1988. 3(2). p.62.

81) 전학수, 노영균. 道家의 氣穴과 韓醫學의 命門思想. 대한한정보학회지. 2008. 14(2). pp.56-57.

82) 申興默, 金吉萱. 命門에 관한 文獻의 考察. 동의생리학회지. 1992. 7(1). p.15.

아들일 것인가?

『內經』에서는, 心이 一身을 主宰하고 생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또한 心이 갈무리하고 있는 ‘神明’이 心에 君主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 神明은 감각·지식·인식·사유 등의 정신활동을 포괄하는 생명활동의 근원 또는 법칙으로서 설명되어지며, 이 때문에 心이 君主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醫貫』에서는 ‘主’를 命門의 無形한 火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곧 太極이며 氣血의 뿌리이고 生死의 관문이며 十二經의 버리로서 十二官이 원활한 기능을 하게끔 ‘主’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하였다. 위치적으로는 위로부터 14椎 아래에, 아래로부터 7椎 위에 위치하며 兩腎으로부터 가운데로 각각 1촌 5푼 되는 곳으로 배꼽의 맞은편 척추 부근에 자리한다고 보았다.

이미 『內經』에서 ‘君主之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기에, 여기서는 이 두 가지 견해를 國家에 비유하여 살펴보겠다. 우선 나라의 주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예로부터 君主나 백성을 모두 나라의 근본 혹은 주인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sup>83)</sup>. 때에 따라서는 백성을 군왕보다 더 귀중한 존재로 여기기도 하였는데<sup>84)</sup>, 이러한 가치부여의 바탕에는 民心을 잃으면 天心을 잃는 것이고, 天心을 잃으면 天命을 잃는 것이니 天命을 잃으면 천하를 잃게 된다는 관점이 있었던 것이다<sup>85)</sup>. 역으로 말하면 군주의 권한과 존립여

부는 백성에게 있으며<sup>86)</sup>, 군주는 天下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권리를 부여받은 존재이고<sup>87)</sup>, 군주라는 존재는 백성을 위한 필요성의 가치에 한정되어 있다는 뜻이다<sup>88)</sup>. 이런 면에서 볼 때 君主가 한 국가의 주인으로서 부여받은 권력의 정당성은 백성들의 뜻에 있으며<sup>89)</sup>, 이러한 民意를 제공하는 백성이 나라의 진정한 주체<sup>90)</sup>요 천하의 주인<sup>91)</sup>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천하를 잃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失德하고 失民心하면 어느 때고 天命을 잃어서 임금의 자리는 바뀔 수 있는 것이다.”

86) 진보성. 조식과 황중희의 민본정치사상에 대한 비교연구. 대전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80. “군주의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군주의 정치행위가 백성의 민생과 안녕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군주는 도태되어야 하며, 그 정권의 정당성 역시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이라는 의미는 위정자들의 정치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일순위의 문제라는 것이며, 이는 국가사회의 구성요소로서 민본의 의미를 규정한다고 하겠다.…… 사실상 군주의 권한과 존립여부는 백성에게 있다는, 민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권한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87) 안병철. 선진유가의 민본정치사상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p.301-302. “특히 儒家民本思想에서의 君主는 百姓을 관리하고 百姓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봉사하는 일꾼으로서, 그는 天下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권리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所有權은 없고 經營權만 있다고 할 수 있다.”

88) 진보성. 조식과 황중희의 민본정치사상에 대한 비교연구. 대전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81. “군주라는 존재는 밑에서부터 위로 추대된 존재로서(下而上) 백성을 위한 필요성의 가치에 한정되어 있던 것이지, 결코 그 위치가 자신을 위한 전권(全權)행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물론 외면적으로 정치는 정치제도권에 종사하는 자들이 수행하는 것이지만, 위정자들은 백성들의 필요성에 의해 그 존재가치가 주어지는 것이다.”

89) 박명숙. 맹자 민본주의의 현대적 의미. 경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56. “맹자의 天命思想은 천이 인격성과 우주만물의 근본원리라 보고 천의는 민의로 나타나므로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민의에 있고 그것은 왕도정치가 된다. …… 왕도정치는 仁義를 실천하는 왕의 성실한 직분 수행을 통하여 그 책임을 다 함으로써 권력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90) 李哲承. 유가의 민본 사상에 나타난 민주적 요소-황중희의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東洋哲學. 2003. 20. p.90. “황중희는 군주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보편적 가치로 여겨지던 시절에 군주를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자로 여기고, 군주는 나라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객체일 뿐이고, 백성들이야말로 나라의 진정한 주체라고 주장하며 ……”

91) 안병철. 선진유가의 민본정치사상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301. “儒家民本思想은, 天下는 百姓들의 天下이며 百姓은 天下의 主人이라는 것을 강조하였

83) 김경희. 맹자의 민본사상 연구. 성균관대 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64. “중국 고대사상 가운데 비록 君王을 ‘天命을 받은天子’로 여기는 관념이 있으나, 다른 한편은 정치적 주체로서 백성이 국가의 근본이라는 관념이 있다.…… 만약 군왕이 군왕의 德을 상실하면 民心은 떠나게 되는 것이며, 이는 곧 天命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君王은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84) 김경희. 맹자의 민본사상 연구. 성균관대 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65. “맹자는 백성이 국가의 근본이 될 뿐만 아니라 군왕보다 더 귀한 존재임을 언급하였다. 즉 民心은 天心과 연계되고 이러한 民心을 얻는 자만이 궁극적으로 天命을 얻어서 君王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백성이 군왕보다 귀한 존재임을 밝힌 것이다.”

85) 이기호. 공맹의 민본사상에 관한 고찰. 한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86. “孟子는 왕이 與民同樂하지 못하면 民心을 잃게 되는 것이니 民心을 잃으면 天心을 잃는 것이고, 天心을 잃으면 天命을 잃는 것이니 天命을 잃으면

이다. 결국 백성은 피통치자임과 동시에 국가의 근본이요 주인이기도 한 것이다<sup>92)</sup>. (이러한 백성의 처지를 인체의 관점에서 잠깐 살펴보면, 은석민<sup>93)</sup>은 命門이 元氣의 근원이 되고 동시에 心의 의식적인 제어를 받고 있다고 보았다.) 즉 군주가 국가의 주인이라는 기존의 보편적 가치와 함께 백성도 나라의 주인이라는 관점의 다양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현대사회의 시각에서 개념정립<sup>94)</sup>을 한다면, 대통령은 위정자 즉 君主의 자격과

다.”

92) 장현근. 민(民)의 어원과 의미에 대한 고찰. 정치사상연구. 2009. 15(1), pp.155-156. “민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람이었으므로 군주는 그들의 수요를 만족시켜줄 의무가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國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었다. 치민의 도는 도덕교화에 있었지 혹형이나 굴레에 있지 않았다. …… 결국 民은 피통치자 전체를 대변하는 글자가 되었으며, 군주의 상대로써 피통치자 전체였고, 天의 상대이며 國의 근본이었으며, 도덕의 표준이었고, 자유롭고 재산권을 가진 존재였다.”

93) 은석민. 命門學說에 대한 知覺論적 해석. 대한한의학회지. 2011. 24(6), p.60. “命門은 『難經』에서의 命門 개념의 차원을 넘어 心과 氣의 밀접한 상관성을 지니게 되었으며, 이는 命門이 단지 元氣의 발원지로서의 개념으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心 즉 마음의 변화와 命門의 관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고찰을 필요로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命門學說이 道敎內丹思想의 영향을 받은 점을 먼저 생각해 볼 때, 그 사상적 틀 내에서는 命門이 元氣의 근원이 될 뿐 아니라 心의 의식적인 제어를 통해 命門에서 발원한 先天之氣로서의 元氣가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94) 이경무. 군(君), 신(臣), 민(民)의 존재와 공자의 이상사회. 汎韓哲學. 2010. 56, pp.56-57. “첫째,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등은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통치 권력의 주체로서 위정자 즉 군(君)의 자격과 권한을 갖는데, 이들의 자격과 권한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투표를 통해 한시적으로 부여해 준 것인 만큼, 자신의 통치 권력과 통치 행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함을 자각하여 그 역할과 사명을 다 해야 하고 또 이를 위해 자기 스스로를 바르게 함은 물론 인륜의 실천에도 힘써야 한다. 둘째, 국가와 비장의 입법, 사법, 행정부의 관료들은 하나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통치 행위의 대행자로서 위정자 즉 신(臣)의 자격과 권한을 갖는데, 이들의 자격과 권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발하고 위정자들의 통치 행위를 대리하게 함으로써 부여된 것이므로, 이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책무를 자각하고 수행하며 또 이를 위해 위정자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올바른 인륜의 실천을 담보해야 한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은 위정자의 통치를 받아야 할 피치자로서 민(民)의 위상을 갖는데, 이들은 국가의 주권을

권한을 갖는데, 이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부여받게 된다. 관료들은 신(臣)의 자격과 권한을 갖는데, 위정자들의 통치 행위를 대리한다. 시민은 위정자의 통치를 받아야 할 被治者로서 민(民)의 위상을 갖는데, 이들은 국가의 주권을 가진 주체로서 자신의 주권을 향유할 자격과 권한을 가진다. 이런 면들을 살펴보았을 때, “心者, 君主之官”에서 뜻하는 心으로서의 ‘主’는 임금·대통령·총리 등에 해당되었고, 『醫貫』에서 말하는 命門으로서의 ‘主’는 百姓·國民의 능력<sup>95)</sup>에 가깝다고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是非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몸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된다.

## 2. 음양론

趙獻可는 음양에 대하여, 天地·氣血·乾坤을 예로 들면서 對待하는 모습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시각은 자연계의 모든 사물이나 현상을 음양으로 관찰함에 있어 陰과 陽이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表裏의 관계를 이루면서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sup>96)</sup>. 예로써, 上下·左右·天地·動靜·出入·升降·晝夜·明暗·寒熱·水火 등의 關係를 들 수 있으며, 대립적인 면과 동시에 통일적인 균형관계를 유지하고 있다<sup>97)</sup>. 이러한

가진 주체로서 자신의 주권을 향유할 자격과 권한을 가지며 또 이를 행사함으로써 국가수반과 각 지방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 및 시, 군, 구 의원을 선출하는 만큼, 스스로의 주권을 소중히 행사함으로써 능력 있고 검증된 위정자를 선출해야 하며 입법, 행정, 사법의 관료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과 지자체 구성원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한편 스스로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격을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95) 恒産을 통하여 나라에 필요한 재정을 조세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하며, 유사시에는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부역을 통하여 나라가 필요로 하는 힘·노동력을 제공한다.

96) 윤창열. 陰陽五行論의 本質과 內容에 관한 考察. 대한원전 의학회지. 1992. 6, p.237. “陰과 陽은 단독으로 存在하지 않고 서로 對立하는 陰과 陽이 表裏의 관계를 이루면서 存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는 우리가 事物을 관찰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素問의 陰陽別論에서는 “知陽者知陰 知陰者知陽”이라 하였다. 즉 우리는 한쪽을 보면서 다른 한쪽을 예측할 수 있고 보이는 면을 관찰하여 보이지 않는 면까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97) 윤창열. 陰陽五行論의 本質과 內容에 관한 考察. 대한원전



음양의 妙는 ‘無’에 근원<sup>98)</sup>하고 있고, 치료에 있어서 몇몇 예를 들고 있다. 血脫에 氣藥인 黃芪가 君藥으로 들어간 補血湯을 쓰거나 失血이 심하여 목숨이 끊어지려 할 때 獨參湯을 써서 無形에서 有形을 생성해 내는 것 등이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陽·火·氣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일체 苦寒한 氣味는 모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혹 여름철에 暑邪가 침입하거나, 혹 炙燻·辛熱한 음식을 많이 먹어 병이 생겼을 때에는 잠시 苦寒한 氣味를 한번 쓸 수 있으나 병이 나오면 곧 그쳐야 되니, 마침내 생명을 건지는 종류는 아닌 것이다.”<sup>99)</sup>

“사람의 몸을 가운데로 쪼개어 陰陽·左右로 나누면, 남자의 오른쪽은 火에 속하여 氣가 되고 왼쪽은 水에 속하여 血이 되며, 여자의 오른쪽은 水에 속하고 왼쪽은 火에 속한다. 무릇 사람이 중풍으로 편마비를 앓을 때, 남자는 왼쪽을 앓는 경우가 많고 여자는 오른쪽을 앓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 水가 영양하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겠는가?”<sup>100)</sup>

“陽氣가 下陷한 경우에는 味가 얇고 氣가 가벼운 종류를 사용하니, 柴胡·升麻와 같은 종류로 들어 올려…… 이것이 東垣의 補中益氣湯이 萬世에 무궁무진한 이로우미 되는 것이다. 반드시 내릴 필요가 없으니, 淸한 것을 올리면 濁한 것은 저절로 내려가게 된다.”<sup>101)</sup>

의사학회지. 1992. 6. p.233. “陰陽學說은 自然界의 一切事物이나 현상은 모두 相互對立하는 陰陽의 두 方面으로 存在하고 있다고 認識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上下·左右·天地·動靜·出入·升降·晝夜·明暗·寒熱·水火 등의 關係이다. 陰陽은 對立의 이면서도 또 統一의 均衡關係를 維持하고 있는데 統一은 對立의 結果에서 나온다. 바꾸어 말해 對立은 둘 사이의 相反의 一面이고 統一은 둘 사이의 相成의 一面이다. 對立이 없다면 統一이 있을 수 없고, 相反의 一面이 없다면 相成의 關係를 이룰 수 없다.”

98) “음양의 妙는 ‘無’에 근원”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뒤의 오행론에 대한 고찰에서 살펴보겠다.

99) “一應苦寒者俱不用.…… 或時當夏令, 暑邪侵入, 或過食炙燻·辛熱而成疾者, 暫以苦寒一用, 中病即止, 終非濟生之品.”

100) “人身劈中分陰陽·左右, 男子右屬火而爲氣, 左屬水而爲血, 女子右屬水而左屬火. 凡人半肢風者, 男子多患左, 女子多患右, 豈非水不能營耶?”

“冬至에 一陽이 생기고 夏至에 一陰이 생기니, 이 二至는 가장 요긴한 것이다.…… 春分·秋分은 그 가운데를 고르게 나눈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유독 冬至에 있다.”<sup>102)</sup>

또한 남녀의 精을 언급하면서 “사람 몸의 陰은 다만 30년간 받아 쓸 양이 갖추어지는 것이다.”<sup>103)</sup>라고 하여, 陽은 항상 남음이 있고 陰은 항상 부족하여 補陰(‘陰’은 陰精을 말한다)하는 공적을 하루라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一面 ‘陽尊陰卑’<sup>104)</sup>의 사상과도 有關한데, 의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박찬국은 “그러므로, 일단 몸속에 저장되었던 精은 적당한 시기가 되면 氣로 化하여 五臟六腑의 활동, 經絡氣血의 활동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內經·素問』의 天癸가 至하였다는 말은 이미 부모로부터 받은 精에 의하여 身體와 精神이 發達하였으니, 이제 스스로 精을 生産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精의 生産이 男子는 16세, 女子는 14세가 되어야 生産되기 시작하듯이, 남자는 64세, 여자는 49세가 되면 生産이 중지되고 만다.”<sup>105)</sup>라고 하였다. 이렇듯 補陰을 주장하면서도 “補陰을 논하는 자들은 모름지기 陽을 위주로 해야 한다. 무릇 陽이 없으면 陰이 생겨날 수 없다.”라고 하여, 거듭 陽·火·氣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溫補學派이자 시기적으로 後代의 醫家인 景岳은 “一, 天地陰陽之道, 本貴和平, 則氣令調而萬物生, 此造化生成之理也. 然陽爲生之本, 陰實死之基, 故道家曰: 分陰未盡則不仙, 分陽未盡則不死. 華元化曰: 得其陽者生, 得其陰者死. 故凡欲保生重命者, 尤當愛惜陽氣, 此即以

101) “如陽氣下陷者, 用味薄氣輕之品, 若柴胡·升麻之類, 舉而揚之,…… 此東垣補中益氣湯萬世無窮之利. 不必降也, 升清濁自降矣.”

102) “冬至一陽生, 夏至一陰生, 此二至最爲緊要.…… 若春分·秋分, 不過從其中平分之耳. 然其尤重者, 獨在冬至.”

103) “人身之陰, 止供三十年之受用.”

104)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유학의 개념들. 서울, 예문서원. 2002. p.85. “양은 음을 결합 수 있지만 음은 양을 결합 수 없다. 그러므로 양은 온전하지만 음은 절반이다. 양은 넉넉하지만 음은 부족하다. 양은 존귀하지만 음은 비천하다.…… 이것이 음양의 분수이며 이치의 필연적 모습이다.”

105) 박찬국. 陰陽과 五行의 關係. 대한원전의학사학회지. 1990. 4. p.16.

生化之元神, 不可忽也.”<sup>106)</sup>라고 하여, 음양의 和平이 귀한 가운데에서도 陽이 곧 生의 근본임을 말하였다.

趙獻可는 병의 근원을 찾고 치료의 방법과 기술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年·月·日·時를 각각 음양으로 나누고, 이에 근거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런 접근방법은 『東醫寶鑑』의 ‘凡病晝夜輕重’<sup>107)</sup>이나 ‘嗽作有四時晝夜之異’<sup>108)</sup>와 같은 條目에도 그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그리고 太陽의 체질과 太陰의 체질을 예로 들면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체질로 규정하였고, 또한 병은 치우침으로 생기는 것이니 不寒不熱한 처방으로는 고칠 수 없고 각각의 음양의 소속을 구하여 寒이나 熱로써 다스릴 것을 주장하였다.

“사람 몸에 心·肝·脾·肺·腎의 五行이 모두 존재하지만, 五臟六腑의 사이를 운행하는 것은 어떤 物인가? 無形의 相火가 있어 陽分을 25번 돌고 無形의 腎水가 있어 陰分을 25번 도는데, 그 뿌리는 先天 太

極의 眞에 근원하고 있다.”<sup>109)</sup>라고 하여, 心·腎을 水火의 眞이라고 알거나 水火를 心腎으로 아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 3. 오행론

오행중에 木·土·金은 죽으면 구원하지 못하나 水火는 眞生을 따르기 때문에 죽지 않고 끊어진 곳에서 生을 만난다고 보며, 이러한 이유로 趙獻可는 水火를 중히 여겼다. 이처럼 수·화를 금·목·토와 구분해 보는 관점은 이미 주돈이의 「태극도」에도 오행 가운데 맨 위에 수·화를 나란히 둔 데서 나타나고 있으며, 주희가 오행을 논하는 가운데서도 단편적으로 나타난다<sup>110)</sup>. 또 氣와 質이란 관점에서 水火에 氣의 의미를 부여하여 차별성을 두기도 하였다<sup>111)112)</sup>. 趙獻

106) 張介賓 編著. 景岳全書·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8. pp.5-6.

107) 許浚 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편역. 原本 東醫寶鑑<新增版>. 서울. 南山堂. 2004. p.339. “凡病晝則增劇夜則安靜是陽病有餘乃氣病而血不病也夜則增劇晝則安靜是陰病有餘乃血病而氣不病也<東垣>○晝則發熱夜則安靜是陽氣自旺於陽分也夜則惡寒晝則安靜是陰血自旺於陰分也<東垣>○晝則安靜夜則發熱煩躁是陽氣下陷入陰中也名曰熱入血室夜則安靜晝則惡寒是陰氣上溢於陽中也<東垣>○晝則發熱煩躁夜亦發熱煩躁是重陽無陰當亟瀉其陽峻補其陰夜則惡寒晝亦惡寒是重陰無陽當亟瀉其陰峻補其陽<東垣>○晝則惡寒夜則煩燥飲食不入名曰陰陽交錯者死<東垣>”

108) 許浚 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편역. 原本 東醫寶鑑<新增版>. 서울. 南山堂. 2004. p.468. “凡咳嗽春是春升之氣夏是火炎上最重秋是濕熱傷肺冬是風寒外束<丹心>○大概春氣上升宜潤肺抑肝夏火上炎宜清金降火秋濕熱甚宜清熱瀉濕冬風寒重宜解表行痰用藥發散之後以半夏等藥逐去其痰庶不再來<入門>○早晨嗽多者胃中有食積至此時火氣流入肺中瀉白散加知母或二母散(五更嗽同)○上半日嗽多屬胃中有火用貝母石膏降胃火一云上半日咳多者(午前也)胃中有實火單石膏丸(方見火門)加知母貝母若便閉喘渴痰稠者宜涼膈散(方見火門)○午後嗽多屬陰虛四物湯加知母炒黃柏先降其火一云午後嗽(下半日也)多屬陰虛四物合二陳湯加知母黃柏麥門冬如寒熱盜汗遺精宜滋陰降火湯(方見火門)○黃芪嗽多此火氣浮於肺不宜用涼藥五味子五倍子斂而降之一云黃昏嗽多者(夜嗽也)潤肺丸以斂之(即潤肺散作丸也)通用二陳湯去半夏加貝母瓜蒌青黛梔子黃芩桑白皮○夜嗽用降陰分火<丹心>○風寒鬱熱夜嗽者三拗湯加知母黃芩生薑<正傳>”

109) “人身心·肝·脾·肺·腎五行俱存, 而所以運行于五臟六腑之間者, 何物乎? 有無形之相火, 行陽二十五度, 無形之腎水, 行陰二十五度, 而其根則原于先天太極之眞.”

110)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유학의 개념들. 서울. 예문서원. 2002. p.88.

111) 윤창열. 河圖와 洛書에 나타난 陰陽五行에 關한 研究. 1994. 8. pp.39-40. “이에 대해 雲莊劉氏(劉燾: 字晦伯, 宋代人)는 水火와 金·木의 差異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水는 陰이지만 天一에서 生하고 火는 陽이지만 地二에서 生하니 이는 半夜로 生할 때에 陰陽이 互根하기 때문에 그의 運行에 있어 水는 子位의 極陰之方에 居하지만 陽은 이미 子에서 生하고, 火는 午位의 極陽之方에 居하지만 陰은 이미 午에서 生하는 것이다. 그러나 木은 天三에서 生하니 오로지 陽에 屬하기 때문에 봄에 行하고 또한 陽에 屬하며 金(‘金’은 ‘陰’이라 되어 있었는데, 같이 실려 있는 원문에 근거하여 ‘金’으로 고쳤다.)은 地四에서 生하니 오로지 陰에 屬하기 때문에 가을에 行하고 또한 陰에 屬하니 陰陽이 꼭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다. 대개 水火는 氣에서 떠나지 아니하니 陰陽이 交合하는 처음에 그 氣運이 互根하는 오묘함이 있지만 木은 陽이 發達한 것이고 金은 陰의 收斂으로 一定한 바탕이 있으니 이것이 水火와 不同한 理由이다.”

112)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유학의 개념들. 서울. 예문서원. 2002. p.87. “오행의 조목이 수·화·목·금·토라는 것은 「대우모大禹謨」와 「우공禹貢」편에 나타나고 「홍범洪範」편에 자세히 다. 역사가들의 오행지五行志는 이것을 기초로 하였다. 소옹邵雍의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는 그것을 수·화·토·석石으로 고쳐 땅의 사상四象이라 말했는데, 대개 선천 先天 사행四行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불교에서는 지地·수·화·풍風 사대四大的 설이 있어 왔고, 명나라 말 선교사들은 또 기氣·화·수·토를 칭하면서 본행本行에 벗어 나고 하였다. 대개 행이라는 것은 그 기가 능히 운행할 수 있

可는 水·火를 중히 여김과 동시에 이에 대하여 세부적인 구분을 하였으니, 그 대략을 보면 다음과 같다.

“火로써 말하자면, 陽火가 있고 陰火가 있으며 水중의 火가 있고 土중의 火가 있으며 金중의 火가 있고 木중의 火가 있다. 陽火는 하늘에 있는 日과 月의 火로서, 寅에서 生하여 酉에서 死한다. 陰火는 환히 비치는 촛불의 火로서, 酉에서 生하여 寅에서 死한다. 이는 對待하는 火이다.”<sup>113)</sup>

“水로써 말하자면, 陽水가 있고 陰水가 있으며 火중의 水가 있고 土중의 水가 있으며 金중의 水가 있고 木중의 水가 있다. 陽水는 坎水이니, 氣이다.…… 陰水는 兌澤이니, 形이다.”<sup>114)</sup>

이처럼 五行의 개별 一行을 하나의 태극으로 보고 재차 오행으로 세분화 하는 작업은 景岳도 하였으니, “所謂五者之中有互藏者, 如木之有津, 木中水也; 土之有泉, 土中水也; 金之有液, 金中水也; 火之熔物, 火中水也. 夫水爲造化之原, 萬物之生, 其初皆水, 而五行之中, 一無水之不可也. 火之互藏, 木鑽之而見, 金擊之而見, 石鑿之而見; 惟是水中之火, 人多不知, 而油能生火, 酒能生火, 雨大生雷, 濕多成熟, 皆是也. 且火爲陽生之本, 雖若無形, 而實無往不在, 凡屬氣化之物, 非火不足以生, 故五行之中, 一無火之不可也.”<sup>115)</sup>라고 한 데서 水·火에 내재된 오행을 살펴볼 수 있으며, 윤창열은 그의 논문을 통하여 “五行속에는 비록 偏差의 多少는 있을지라도 각각 一行속에 모두 五行의 特徵을 갖추고 있다.”<sup>116)</sup>라고 결론 맺고 있다.

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金·木·토는 모두 이미 質을 이룬 것이어서 기라고 할 수 없다. 오직 水·화만이 기로서 아직 質을 이루지 않았다. 만약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하자면 水·화를 버리고 다른 데서 구할 수 없으니, 이것이 네 학과가 모두 水·화를 거론하고 있는 이유이다.”

113) “以火言之, 有陽火, 有陰火, 有水中之火, 有土中之火, 有金中之火, 有木中之火. 陽火者, 天上日月之火, 生于寅而死于酉. 陰火者, 炳燭之火, 生于酉而死于寅. 此對待之火也.”

114) “以水言之, 有陽水, 有陰水, 有火中之水, 有土中之水, 有金中之水, 有木中之水. 陽水者, 坎水也, 氣也.…… 陰水者, 兌澤也, 形也.”

115) 張介賓 著. 類經圖翼.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pp.11-12.

116) 윤창열. 陰陽五行論의 本質과 內容에 관한 考察. 대한원

趙獻可는 아울러 水·火의 관계에 있어서도 “水가 火를 克하는 것은 後天의 有形한 水火이고, 水가 火를 기르는 것은 先天의 無形한 水火이다.”<sup>117)</sup>라고 하여, 水克火는 後天의 관계이고 水生火는 先天의 관계라 말하였다. 이런 반대되는 개념에 대해 윤창열<sup>118)</sup>은 ‘物極則反’의 개념으로 보아 水가 極하여 火를 生한다는 견지를 취하였다. 이렇다면 水가 火를 生하는<sup>119)</sup> 것은 極點에서 변하여 나타나는 바 水生火가 다시 水克火로 바뀌게 되는 것도 極點에서 변하여 나타날 것이라 여겨지며, 이와 같은 極點이 결국 趙獻可가 주장하는 先後天의 구분 점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인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결국 五行相克의 目的은 克에 있는 것이 아니고 生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하겠다<sup>120)</sup>. 이처럼 先後天으로 나뉘는 견해는 앞의 ‘IV.고찰-2.陰陽論’에서 언급되었듯이 水火를 心腎으로 아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水火를 心腎으로 여기게 되면 그 순간

전의사학회지. 1992. 6. p.250.

117) “水克火者, 後天有形之水火也; 水養火者, 先天無形之水火也.”

118) 윤창열. 陰陽五行論의 本質과 內容에 관한 考察. 대한원 전의사학회지. 1992. 6. p.247. “一夫는 正易에서 “易은 逆也니 極則反하나니라 土極하면 生水하고 水極하면 生火하고 火極하면 生金하고 金極하면 生水하고 木極하면 生土하니 土而生火하나니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李正浩는 土土가 極하여 一水를 낳고 一水가 極하여 二火를 낳고 二火가 極하여 四金을 낳고 四金이 極하여 八木을 낳고 八木이 極하여 다시 土土를 生하는 理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韓東錫은 土極生水 水極生火 火極生金 金極生木 木極生土에 대해 비록 土極水의 過程에 있어서도 그 極에 達하게 되면 極이 變하여 生이 되고 水極火의 過程도 그것이 極에 達하면 極이 變하여 生이 되고 火極金의 過程도 그것이 極에 達하면 極이 變하여 生이 되고 金極木의 過程도 그것이 極에 達하면 極이 變하여 生이 되고 木極土의 過程도 그것이 極에 達하면 極이 變하여 生이 되는 意味를 內包하고 있다고 하였다.”

119) 水生火의 과정을 韓東錫은 “그런즉 水는 戊에서부터 辰 사이에서 火를 克하면서 發展하는 바 辰에 이르게 되면 다시 火를 生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韓東錫 著. 宇宙變化의 原理. 서울. 행림출판. 1993. p.92.)

120) 韓東錫 著. 宇宙變化의 原理. 서울. 행림출판. 1993. p.92. “五行은 이와 같이 相克하면서 發展하는 것인데 그것은 克을 爲한 克이 아니고 克의 極點에 이르러서 다시 生하는 運動을 하기 爲한 克이다. 그런즉 五行相克의 目的은 克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生에 있는 것이다.”

後天의 有形한 水火가 되어 水克火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즉 心腎의 水火와는 별개로 無形의 相火와 無形의 腎水가 있으며, 그 뿌리는 先天 太極의 眞에 근원하고 있다. 이처럼 先天의 無形한 水火에 대한 관점은, 『內經』十二官論에서 주된 논점으로 언급되는 命門에 대한 개념<sup>121)</sup>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景岳 또한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一，道產陰陽，原同一氣，火爲水之主，水卽火之源，水火原不相離也。何以見之？如水爲陰，火爲陽，象分冰炭。何謂同源？蓋火性本熱，使火中無水，其熱必極，熱極則亡陰，而萬物焦枯矣。水性本寒，使水中無火，其寒必極，寒極則亡陽，而萬物寂滅矣。此水火之氣，果可呼吸相離乎？其在人身，是卽元陰元陽，所謂先天之元氣也。欲得先天，當思根柢。命門爲受生之竅，爲水火之家，此卽先天之北闕也。舍此他求，如涉海問津矣，學者宜識之。一，凡人陰陽，但知以氣血臟腑寒熱爲言，此特後天有形之陰陽耳。至若先天無形之陰陽，則陽曰元陽，陰曰元陰。元陽者，卽無形之火，以生以化，神機是也，性命係之，故亦曰元氣。元陰者，卽無形之水，以長以立，天癸是也，強弱係之，故亦曰元精。元精元氣者，卽化生精氣之元神也。生氣通天，惟賴乎此。經曰：得神者昌，失神者亡，卽此之謂。今之人多以後天勞欲，戕及先天，今之醫只知有形邪氣，不知無形元氣。夫有形者，迹也，盛衰昭著，體認無難；無形者，神也，變幻倏忽，挽回非易。故經曰：粗守形，上守神。嗟呼！又安得有通神明而見無形者，與之共談斯道哉。”<sup>122)</sup>

## V. 결론

以上の 번역을 통하여 趙獻可의 命門·君主·火·太極·陰陽·五行에 대한 견해를 보다 좀 더 상세히 알 수 있었고, 이는 곧 『醫貫』의 2~6권을 통한 임상적용에 있어서도 큰 밑바탕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內

經』을 통한 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그가 주장한 논거의 타당성 여부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아울러 사람의 ‘主’에 대한 『內經』과 『醫貫』의 견해도 살펴볼 수 있었다. 번역과 고찰을 통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람의 ‘主’는 命門의 無形한 火이며, 이는 곧 太極이며 氣血의 뿌리이고 生死의 관문이며 十二經의 버리로서 十二官이 원활한 기능을 하게끔 ‘主’가 그 바탕을 이룬다. 위치적으로는 위로부터 14椎 아래에, 아래로부터 7椎 위에 위치하며 兩腎으로부터 가운데로 각각 1촌5푼 되는 곳으로 배꼽의 맞은편 척추 부근에 자리한다.

2. 단, 사람의 ‘主’를 命門으로 간주하는 과정에 있어서 趙獻可가 論據로 삼은 “12官이 위태롭다는 것은 당연히 11官 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워 보인다.

3. 그리고 『素問·靈蘭秘典論』에 나온 “心者，君主之官”의 ‘主’와 趙獻可가 말하는 命門으로서의 ‘主’는 是非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몸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 보인다.

4. 음양은 對待하는 모습으로서, 그 妙는 ‘無’에 있다.

5. 陽·火·氣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6. 年·月·日·時를 각각 음양으로 나누고, 이에 근거하여 병의 근원을 찾고 치료의 방법과 기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7. 오행중에 水火가 더욱 중요하다. 火에는 陽火, 陰火, 水중의 火, 土중의 火, 金중의 火, 木중의 火가 있다. 水에는 陽水, 陰水, 火중의 水, 土중의 水, 金중의 水, 木중의 水가 있다.

8. 心腎의 水火와는 별개로 無形의 相火와 無形의 腎水가 있으며, 그 뿌리는 先天 太極의 眞에 근원하고 있다.

## 참고문헌

<논문>

1. 방정균. 『黃帝內經』의 心의 概念과 藏象에 대한 연구. 상지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0. pp.48-49.

121) 趙獻可 著, 晏婷婷 校注. 醫貫.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2. “蓋此一主者，氣血之根，生死之關，十二經之綱維。……若有物可指，有形可見，人皆得而知之矣。惟其無形與無物也，故自古聖賢因心立論，而卒不能直指其實。”

122) 張介賓 編著. 景岳全書·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8. p.5.

2. 申興默, 金吉萱. 命門에 관한 文獻的 考察. 동의생리학회지. 1992. 7(1). p.15.
  3. 이용태, 김완희. 命門에 對한 考察. 동의생리학회지. 1988. 3(2). p.62.
  4. 전학수, 노영균. 道家의 氣穴과 韓醫學의 命門思想. 대한한의정보학회지. 2008. 14(2). pp.56-57.
  5. 정연미. 徐子平『瑤珠子三命消息賦注』의 命理學史의 研究. 원광대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p.37-38.
  6. 김남형. 만과식적 설화의 역사적 의미. 韓國學論集. 2009. 38. p.171.
  7. 김경희. 맹자의 민본사상 연구. 성균관대 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64, 65.
  8. 이기호. 공맹의 민본사상에 관한 고찰. 한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86.
  9. 진보성. 조식과 황중희의 민본정치사상에 대한 비교연구. 대전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80, 81.
  10. 안병철. 선진유가의 민본정치사상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301.
  11. 박명숙. 맹자 민본주의의 현대적 의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56.
  12. 장현근. 민(民)의 어원과 의미에 대한 고찰. 정치사상연구. 2009. 15(1). pp.155-156.
  13. 李哲承. 유가의 민본 사상에 나타난 민주적 요소-황중희의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東洋哲學. 2003. 20. p.90.
  14. 이경무. 군(君), 신(臣), 민(民)의 존재와 공자의 이상사회. 汎韓哲學. 2010. 56. pp.56-57.
  15. 윤창열. 陰陽五行論의 本質과 內容에 관한 考察. 대한원전전의학회지. 1992. 6. p.233, 237, 247, 250.
  16. 윤창열. 河圖와 洛書에 나타난 陰陽五行에 關한 研究. 1994. 8. pp.39-40.
  17. 박찬국. 陰陽과 五行의 關係. 대한원전전의학회지. 1990. 4. p.16.
  18. 은석민. 命門學說에 대한 知覺論적 해석.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1. 24(6). p.60.
  19. 이화. 조현가의 생애와 의학사상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20. 황병한. 조현가의 학술사상에 관한 연구: 명문학설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21. 정동혁, 맹웅재. 趙獻可의 『醫貫』중 咳嗽論에 관한 研究. 韓國醫史學會誌. 2010. 23(1).
- <단행본>
1. 趙獻可 著, 晏婷婷 校注. 醫貫.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9. p.內容提要, 3(校注說明). pp.1-25.
  2. 趙獻可 著, 陳永萍 校注. 醫貫. 北京. 學苑出版社. 1996. pp.3-28.
  3. 洪원식 著.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7. p.249.
  4. 陳大舜, 曾勇, 黃政德 譯. 各家學說-中國篇. 서울. 대성의학사. 2001. p.318. pp.311-312.
  5. 韓東錫 著. 宇宙變化의 原理. 서울. 행림출판. 1993. p.31, 92.
  6. 박찬국 譯註.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注釋. 경기. 집문당. 2009. p.447, 450, 559. pp.349-350.
  7.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靈樞譯解.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88, 89, 259, 268, 269, 295, 402, 431, 494, 575.
  8. 楊維傑 編著. 黃帝內經素問譯解.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8, 102, 255, 271, 339, 341, 701. pp.246-247.
  9. 張介賓 著. 類經圖翼.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0. pp.11-12.
  10. 張介賓 編著. 景岳全書·上. 서울. 大星文化社. 1988. pp.5-6.
  11. 許浚 著. 東醫寶鑑國譯委員會 편역. 原本 東醫寶鑑<新增版>. 서울. 南山堂. 2004. p.339, 468.
  12. 周易(元). 대전. 學民文化社. 1998. p.281, 378.
  13. 周易(亨). 대전. 學民文化社. 1998. pp.386-387.
  14. 禮記(亨). 대전. 學民文化社. 2005. p.144.
  15. 李龍範 著. 韓國科學思想史研究.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p.154.
  16. 존 헨더슨 지음, 문중양 역주. 중국의 우주론과 청대의 과학혁명. 서울. 소명. 2004. p.193.

17.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유학의 개념들. 서울. 예문서원. 2002. p.85, 87, 88.

<기타매체>

1. 編者未詳. 七政算內篇丁卯年交食假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cited 2012 June 5]: Available from: URL: [http://e-kyujanggak.snu.ac.kr/GDS/GDS\\_VIEW\\_KG.jsp?ptype=list&subtype=kk&bookid=GK03188\\_00&setid=](http://e-kyujanggak.snu.ac.kr/GDS/GDS_VIEW_KG.jsp?ptype=list&subtype=kk&bookid=GK03188_00&setid=)